충남人 여성in

2021 Vol. 40

여성이 새로 여는 세상

2021 스페셜 이슈

충남 남성의 양성평등 의식
2021 젠더 이슈는?

함께하고

연구사업 리뷰
알쓸 여성가족제도
지역활동가의 작은 연구

공유하며

교육사업 리뷰
2021 여성 소모임 활동 현장
팬데믹 이후 돌봄을 돌아보다

이야기로

개원 22주년 기념세미나
홈커밍데이 스케치
CWPDI cowork
북 스토리

소통하다

SNS 홍보기자단
충남여성 뉴스룸
성평등 충남을 만드는 사람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충남人 여성in

2021 Vol. 40

CONTENTS

COVER STORY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통권 제40호
발행일 2021.12.31
발행인 조양순
발행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주소 32626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학봉리 191-5)
연락처 Tel. 042) 825-1823 Fax. 042) 825-2461
누리집 www.cwpdi.re.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cwpdi
편집 · 인쇄 ㈜봄인터랙티브미디어 www.bom21.com

인트로

04
발간사
조양순 원장

06
발간 축사
오인환 위원장, 이필영 이사

특집

08
충남 남성의 양성평등 의식
성평등에 대한
지역 남성들의 시각은?

14
젠더이슈
2021 젠더 이슈는?

함께하고

22
연구사업①
포스트코로나시대 충남 서비스업
여성 일자리 변화와 대응방안
: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6
연구사업②
충남 아동 · 청소년 삶의 질
현황 및 실태 분석 연구

30
연구사업③
충남 아동 · 청소년 성매매 · 성폭력
피해실태 및 지원 방안

34
알쓸 여성가족제도
2021년부터 달라진
정부의 여성 · 가족제도는 무엇?

38
작은 연구
우리 지역 여성활동가들의
2021년 연구 이슈

42
2021 연구리스트

공유하며

46
인큐베이팅 2021
성평등 확산의 작은 씨앗

48
인큐베이팅 zoom-in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본 여성인권의 현실

52
찾아가는 풀뿌리 자치학교
백래시를 대하는 당신의 자세

56
젠더포럼
코로나19 이후 돌봄을 돌아보다

60
돌봄 현장
코로나19가 남긴 흔적

이야기로

66
세미나 스토리
개원 22주년 기념세미나

72
홈커밍데이 스케치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홈커밍데이로 OH! SHU [오슈]

76
CWPDI cowork
유관순연구소 공동학술대회

78
북 스토리
연구원 추천 도서

소통하다

82
SNS 기자단
2021년 충남 구석구석을 누빈
SNS 홍보기자단의 행보

86
충남여성 뉴스룸

90
성평등 충남을 만드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도민과 본원의 연구진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일일이 담기엔 부족한 지면이지만 '충남인 여성인' 통권 40호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올해는 본원의 직원들이 각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안정화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기관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중의 하나는 지난 11월 '충남여성가족연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과 운영조례에 대한 의회 심의가 통과되어, 2022년 새로운 모습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위한 TF를 구성 · 운영하면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모색되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각종 교육 및 소통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환경도 구축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충남 남성들의 성평등 의식 수준을 분석한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와 연계하여 추진된 남성육아 참여 토론회 결과를 비롯하여 충남 아동 · 청소년 성폭력 · 성착취 피해실태 분석 결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충남 서비스업 여성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의 연구 성과를 담았습니다.

또한 본원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이뤄낸 여러 성과들 중에서도 트롯 가사 속에서 성불평등을 분석한 재미있는 작은연구를 비롯해서 소모임 인큐베이팅 활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된 코로나 블루 극복 프로젝트 현장 스케치, 정부 홍보물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결과 등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연초에 15개 시 · 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과의 접견을 통해 기초단체와의 협력방안을 기획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경찰대학 등 충남도 소재 다양한 분야의 유관기관들과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협업도 모색했습니다. 충남의 여성독립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공동학술대회 등이 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남도민의 관심과 노력으로 성평등 의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여성, 장애여성, 다문화여성 등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생활 속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애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직원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맘을 전하고, 2022년에는 '성 평등 충남,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해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함께하면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조양순 원장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충청남도 충남人 여성in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인환 입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충남人 여성in」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들에게 필요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여성 · 가족, 복지 및 다문화 등 각 분야에서 각층과 세대 간 양성평등 문화가 정립되도록 도정과 지역여성을 잇는 중추적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올해에도 역시,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충남 여성들의 권익보호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여성 · 가족 · 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현안과 지역의 이슈를 반영하여 현장 밀착형 연구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 소식지는 한 해 동안의 연구와 성과에 대한 결실로 여성이 행복한 충남의 모습을 풍성하게 담아냈습니다. 소식지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조양순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에는 충남의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몸도 마음도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위원회는 여성정책개발원과 함께 충남 여성들이 존중과 평등을 느끼며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오인환 위원장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더 큰 발전을 모색하는
「충남人 여성in」의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1999년 개원 이래, 여성 · 가족 · 성평등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양성평등한 도정 구현을 위해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들이 도 · 시 · 군정에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여성 · 가족 · 다문화 ·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열의를 다해 주신 조양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도내 각 지역에서 활동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다양한 여성가족 기능을 집중 · 발현할 종합 플랫폼인 충남여성가족플라자(가칭)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 정책 연구 · 실행,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 분야별 정책을 통합하여 지역성평등지수를 견인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이 충남도민의 삶에 위로를, 충남여성의 삶에 희망을 안겨 주었음을 확신합니다. 양성평등은 더 행복한 충남으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자 밑거름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2022년에도 '성평등 충남',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도 성평등 도정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이필영 이사장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성평등에 대한 지역 남성들의 시각은?

충남 남성의 양성평등 의식 조사

최근 몇 년 새 성평등 관련 법안과 제도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 보고되는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양성평등 실태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2018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한국 여성의 노동환경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2021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에 머물렀다. 이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앞서 개개인의 의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충청남도는 수년간 지역성평등지수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본 연구는 지역의 성평등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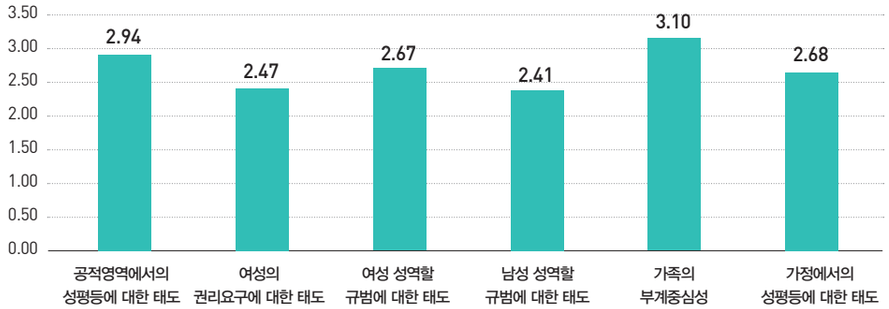
조사 방법 및 개요

본 조사는 충청남도의 남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12일간 충남도 15개 시 · 군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70대 미만의 남성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연령과 지역에 따른 표본 할당을 통해 1:1 대면조사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했다. 표본설계는 지역별 인구 분포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였고, 다시 연령대별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비비례층화 표집방식을 활용하여 1,300명의 표본을 설정했다.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낮추는 요인은?

양성평등의식은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여성의 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가족의 부계중심성,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등 6개 항목을 하위 요인으로 구분해 총 12개의 문항을 조사했다.

|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낮추는 요인 |



응답자 특성별 양성평등의식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 및 혼인상태, 주관적 계층의식, 양성평등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맞벌이 여부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별 양성평등의식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위요인 중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에 대해 20대가 2.93점인 반면, 60대는 2.29점으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혼인상태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차이는 전반적으로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여성의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에서 유일하게 기혼(2.52점)이 미혼(2.3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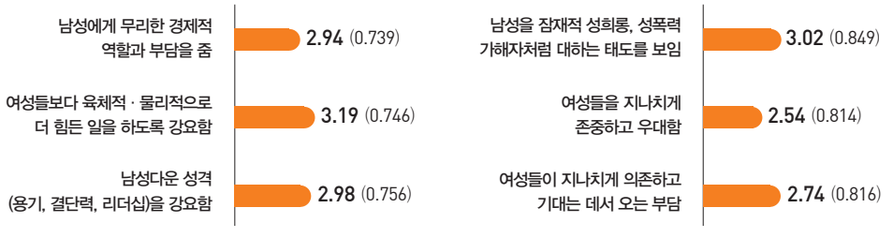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76점(SD=0.435)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인식에 관한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3.21(SD=0.767)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가 2.79(SD=0.837)점,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가 2.74(SD=0.886)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는 문항은 2.54(SD=0.863)점으로 가장 낮았다.

역차별 경험에 대한 유무

최근 1년 이내 남성의 역차별 경험 유무를 살펴본 결과, 역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6.8%로, 대다수의 남성이 역차별 경험이 없었다. 응답자 특성별 역차별 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연령대, 혼인상태, 양성평등교육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34.3%)와 30대(34.1%)에서 역차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차별의 경험보다는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50대(25.2%)가 뒤를 이었고 40대(19.8%)와 60대(18.3%)는 역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역차별 경험에 따른 역차별 의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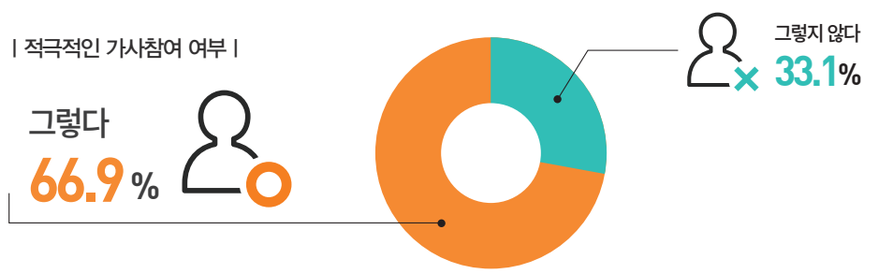
단위 : %



가사 참여와 돌봄의 역할은?

남성의 가사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주로 많이 하거나 대부분 전담한다는 가사 영역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57.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전관리(39.8%), 집안 청소(34.7%), 가족의 경조사 및 기념일 챙기기(33.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다림질(16.4%), 식사 준비(16.8%), 세탁(25.2%)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의 양육 참여를 살펴보면, 주로 많이 하거나 대부분 전담한다는 가사 영역은 자녀와 주말에 놀아주기가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 학업 관리가 21.9%, 자녀 등교준비가 21.3% 순으로 나타났다.

| 적극적인 가사참여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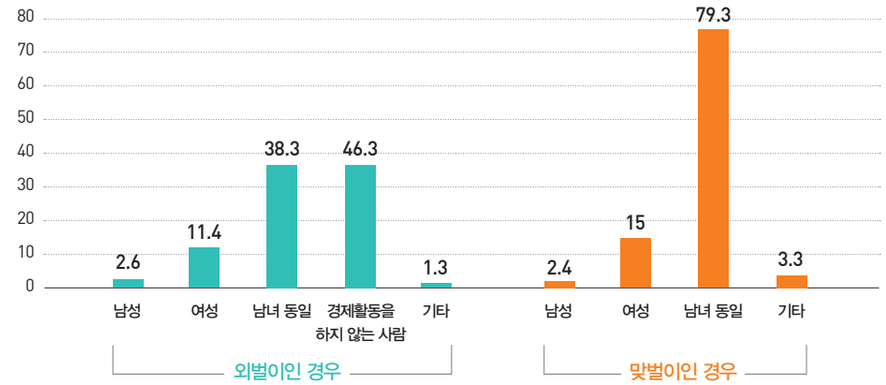


돌봄 부담에 대한 역할 분담 인식

외벌이인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돌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절반 가까운 4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녀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38.3%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인 경우에는 남녀 동일하게 돌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7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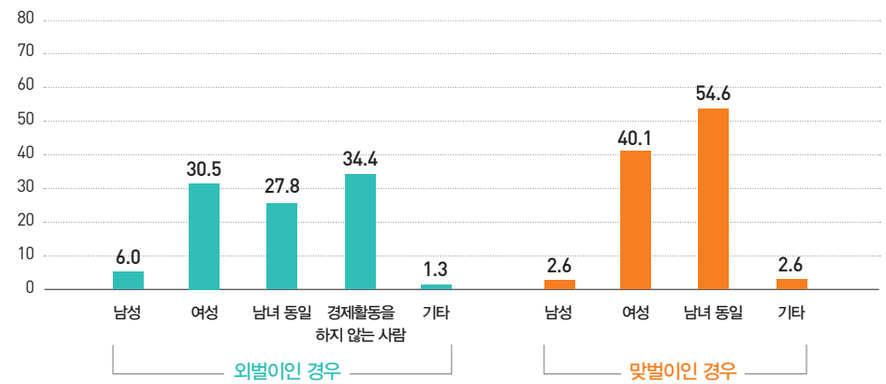
| 돌봄 부담에 대한 역할 분담 인식 |

단위 : %



| 실제 돌봄 역할 분담 현황 |

단위 : %



두 표를 비교했을 때 역할 분담 인식과 실제 돌봄 현황 사이 괴리가 나타났다. 이는 돌봄 부담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실제 현실에서는 인식 수준에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벌이의 경우 인식과는 다르게 실제 여성의 돌봄 부담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돌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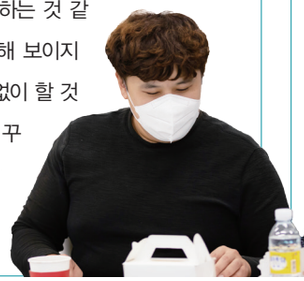
같은 상황, 다른 생각 **성평등 가족문화 스케치**

이번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참여한 가정 중 네 쌍의 부부를 초대해 서로의 가사 분담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사 노동에 대한 부부의 같은 상황, 다른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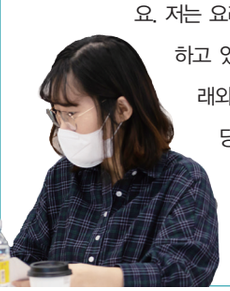
가사는 서로의 강점에 맞춰 분배

심아람 · 이강열 부부(30대, 맞벌이)

남편_ **이강열** 맞벌이 부부로서 집 안 일은 대부분 제가 맡아서 합니다. 저는 주로 요리와 주방 일과 빨래,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를 담당해요. 와이프는 주로 정리 정돈과 바닥 닦기를 맡아서 하고요. 아내는 퇴근 후 집에 와서 집 안 청소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아요. 집안 일이 사소해 보이지만 밀리면 걷잡을 수 없이 할 것들이 불어나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하는 일같아요.



아내_ **심아람** 우리 집은 가사에 있어 남녀 구분을 절대 하지 않아요. 또 육아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요. 아이에게도 가족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사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인지시키고 있어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남편이 담당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남편이 빨래와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자주 밀린다는 것이 문제에요. 하하하.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잘 하는 것부터 칭찬

이승수 · 박주예 부부(40대, 외벌이)

남편_ **이승수**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가게에 출근하기 전에 매일 청소기를 돌리는 것이 제가 하는 유일한 가사입니다. 그 밖에 다른 가사 노동을 함께 해 주고 싶지만 가게 문을 닫고 오면 밤이 늦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 늘 미안하게 생각해요.

아내_ **박주예** 본인은 도와준다고 가사에 참여하지만 제 성에 차지 않아 결국 두 번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도와줬다는 것에 의미를 둬서 고맙기도 하고, 또 청소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잘 해요.

남편_ **김진수** '집안 일을 함께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집에 오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가끔 유일하게 하는 가사가 설거지인데, 그것도 싱크대 높이가 안맞아 허리가 아프고 쉽지 않더라고요. 가사를 거들어서 해도 아내의 기대에 못 미쳐 선뜻 나서기도 꺼려지고요. 그래도 마음 먹고 앞으로 가사 노동에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서로 쿨~해지기를 택했다!

아내_ **오은혜** 신혼 때는 제가 가사 일을 도맡아 하며 남편이 가사를 제대로 못하면 히스테리를 부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사에 집착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가사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교육하고 있어요. 집이 어질러지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만큼 치우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요. 그랬더니 마음도 훨씬 편하고 좋아요.

김진수 · 오은혜 부부(40대, 맞벌이)

김성진 · 신소연 부부(30대, 외벌이)

서로의 기대를 완전 충족

아내_ **신소연** 제가 늘 집에 있지만 남편이 가사 일을 늘 함께 해 주는 편이에요. 요리는 제가 더 잘하니깐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퇴근 후 저녁 먹고 설거지는 남편이 주로 하고 맞벌이 부부 시절에도 잘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유일하게 남편이 못하는 부분이 화장실 청소인데, 이 부분은 깨끗함에 대한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남편_ **김성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지인들과 집에서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아내가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저녁을 준비해요. 아내도 다같이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해서 모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되었고요. 다만 제가 먼저 취해 잠이 들면 아내 혼자 뒷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런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려고 해요. 가사를 같이 하려고 늘 노력하지만 요리나 설거지 등은 주로 아내가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 늘 고마운 마음이며 그래서 주말에는 최대한 제가 많이 하려고 해요.

NEGATIVE

POSITIVE

2021 젠더 이슈는?

젠더 갈등 문제는 올해도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정치 · 경제 · 문화 등 영역 구분 없이 주요 소재로 등장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치성향과 남녀성별을 결부시키면서 등장한 신조어 '이대남', 어느 유통 브랜드의 남성비하 논란 광고, 방송계에 부는 언니 열풍, 대선 후보 4인의 양성평등 실현 공약 등 희비가 교차했던 2021년 젠더이슈를 소개한다.

issue

부정 이슈
NEGATIVE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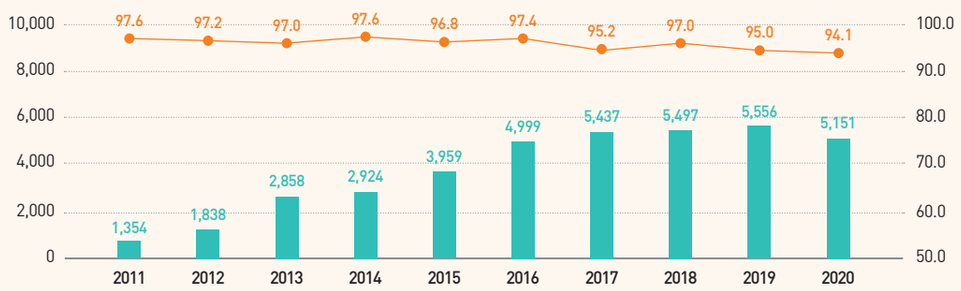
이대남 VS 이대녀

4 · 7 재보선 이후 보수층을 지지하는 20대 남성이 급격히 늘면서 이들을 일컫는 '이대남'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한때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단어로 유행됐던 '이대녀(이화여자대학교 출신 여성을 의미)'에 대비해 사용하는 말로 같은 연령층이지만 성별에 따라 인식 차가 뚜렷하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여성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가부장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남성은 각종 여성 우대 정책 등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30 세대에서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한데, 지난 3월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46%와 30대 남성의 51%가 '우리 사회는 여자가 더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답했다. 반면 20대 여성의 5%, 30대 여성의 9%만이 '여자가 더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답했다.

갈수록 흉악해지는 여성 대상 범죄

최근 경찰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자 8명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공개된 수치이다. 여성가족부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폭력 사건은 10년 동안 1만 건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불법촬영 검거건수는 4,744건으로, 검거 인원은 5151명이다. 이들 가운데 94.1%는 남성으로 파악됐다. 또 7월 서울시가 서울 초 · 중 · 고생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응답자 21%가 디지털 성범죄 위험 노출 경험이 있고, 56%는 원치 않은 성적 메시지와 사진을 받았다고 했다.

| 불법촬영 발생과 검거 현황 | 검거인원 남성비율 단위 : %



출처 2021 통계로보는 여성의 삶 (여성가족부, 2021)

집게손가락의 의미

한 유명 유통 브랜드가 자사 광고에 집게손가락 이미지를 넣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남성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 받아온 '메갈리아' 커뮤니티의 로고와 비슷하다는 것이 이유인데, 우리나라 남성의 특정 부위가 작다는 것을 조롱하는 제스처로 해석되어 논란이 된 것. 논란이 커지자 해당 브랜드에서 남성 고객을 달래기 위해 사과문을 게재했고 다른 기업과 공공기관도 광고나 홍보물에 집게손가락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삭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젊은 남성들의 반(反)페미니즘 정서가 담긴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해당 브랜드가 포스터 제작과 관련한 임직원을 징계하거나 보직해임하며 일단락되었다.

쎈언니, K-언니 열풍

긍정 이슈
POSITIVE ISSUE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스포츠와 힙합 문화에 '여풍'이 불고 있다. 새로운 여풍의 시작은 바로 도쿄 올림픽. 양궁 스타 '안산'과 여자배구 '김연경' 등 많은 여성 선수가 매달을 획득하며 스포츠 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도 했다. 특히 국가대표 배구팀 주장 김연경은 "해보자, 해보자! 후회없이, 후회하지 않게!"를 외치며 언니 리더십을 보여줬고, 이를 통해 올림픽 최종 4위라는 결과와 감동을 선사했다. 이후 그 여세를 몰아 예능프로인 '골 때리는 그녀들'이 흥행을 하기도 했다. 여배우와 모델, 개그우먼 등 다양한 직군의 여성 연예인이 모여 오합지졸 축구팀을 이뤘지만 몸을 사리지 않고 경기에 임하며 매순간 진정성을 보여줘 많은 시청자를 매료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방송가의 여풍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줄여서 '스우파')

라는 여성 댄서 배틀 프로그램으로 절정을 찍었다.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방영 내내 예능 부문에서 콘텐츠 영향력 지수(CPI) 1위를 차지했고 유튜브 조회수는 3억 뷰를 넘어섰다. 각종 무대와 방송, 광고, 패션계까지 섭렵하며 종영 후에도 화제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정부 간행물에도 성폭력에 대한 용어는 신중히!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지난 11월 '성폭력 · 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정부부처에 배포했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언론이 간행물이나 매체 등에 성범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경우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자제해야 할 용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가이드라인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리벤지포르노' 등의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불법촬영물','불법유포물'로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이드라인 배포와 함께 간행물의 기획 · 제작 · 배포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보도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객관성이 기대되고 있다.

잘못된 표현 및 사용례	올바른 표현 및 사용례
몰카, 몰래카메라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내포하여 범죄의식 약화 초래	불법촬영
음란물 범죄 피해영상물을 '음란물'로 지칭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됨	★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피해영상물에 사용하지 않음

잘못된 표현 및 사용례	올바른 표현 및 사용례
리벤지 포르노 '리벤지'는 복수, 보복이라는 뜻으로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	**불법촬영물** (촬영부동의 영상인 경우) **불법유포물** (유포부동의 영상인 경우)
딥페이크 '딥페이크'는 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하나, 허위영상물 제작 · 유포 등 범행을 통칭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됨	**불법합성물**
야동 성인물 또는 음란물을 뜻하는 은어 또는 비속어	**성인물 또는 음란물** ★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피해영상물에 사용하지 않음
몹쓸 짓, 일탈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축소시켜 범죄 경시 풍조 조장	**성범죄**
악마, 짐승, 늑대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 하여 성범죄를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게 함	(사용자제)
ㅇㅇ녀, 여ㅇㅇ 피해자의 신상에 집중하게 만들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형성	
노예, 육변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혐오 표현으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재생산할 우려 있음	

대선 주자 4인의 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공약

부정적 젠더이슈가 많았던 한 해였지만 대선에 출마하는 4인의 대선 주자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사회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각 후보 별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공약을 살펴봤다.

"양성평등 실현의
가장 핵심은 여성의
사회진출 적극 돕는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 부모 각 1년 6개월씩 총3년 육아휴직 확대
- 긴급 돌봄 확대
- 권력형 성범죄 근절
- 양성평등부로 개편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
걱정없는 사회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유치원 · 보육시설 통합
- 남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자동등록제
-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 셩벌임금공시제
-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일과 양육이
병행되는 사회를 만들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 슈퍼우먼 방지법(전국민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센터 설립
- 젠더 폭력 근절 3원칙, 5대 공약 제시
- 성평등부로 격상

"리더의 행동과 믿음으로
여성을 존중하는 마음,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 공공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70% 확대
-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대량 설립
- 스토킹 처벌법 강화와 형법 개정
- 디지털 성착취에 가담한 플랫폼,
  운영자 처벌

함께하고

TOGETHER

연구사업①
포스트코로나시대 충남 서비스업
여성 일자리 변화와 대응 방안 22

연구사업②
충남 아동 · 청소년 삶의 질 현황 및 실태 분석 26

연구사업③
충남 아동 · 청소년 성폭력 · 성착취
피해실태 및 지원방안 30

알쓸 여성가족제도 34

작은연구
우리지역 여성활동가들의 2021년 연구 이슈
트롯의 가사분석을 통한 성평등 연구 38

2021 연구리스트 42

포스트코로나시대 충남 서비스업 여성 일자리 변화와 대응방안 :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서비스업 일자리 위축이라는 고용 충격과 온택트 소비 확대, 디지털뉴딜 등 새로운 일자리 준비 대책을 가속화시키는 양가의 결과를 불러왔다. 이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도내 사업체 및 종사자의 50%가 분포한 천안시와 아산시의 일부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충격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과 위기 양상을 파악했다. 이번 연구는 일대일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으며, 총 760개의 사례가 조사 대상으로 수집됐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충남도 교육서비스업 일자리 대응방안을 모색해 봤다.

연구자 | 안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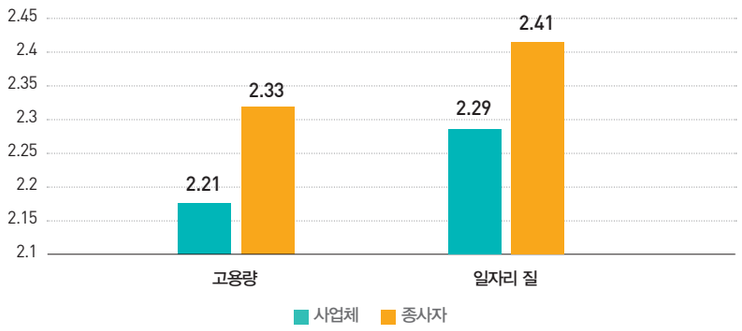
포스트코로나 시대 일자리 전망은 '부정'

코로나19 이후 사업주 및 종사자 모두 이전과 비교해 고용량이 감소하고 일자리 질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봐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비대면 · 디지털 서비스 전환 시대를 대비해 우선 투자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업체의 경우 인프라 구축(45.7%)과 온라인 콘텐츠 구입(42.5%)이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종사자들은 부문 간 비교적 균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업체 경우
인프라 구축
45.7%
온라인 콘텐츠 구입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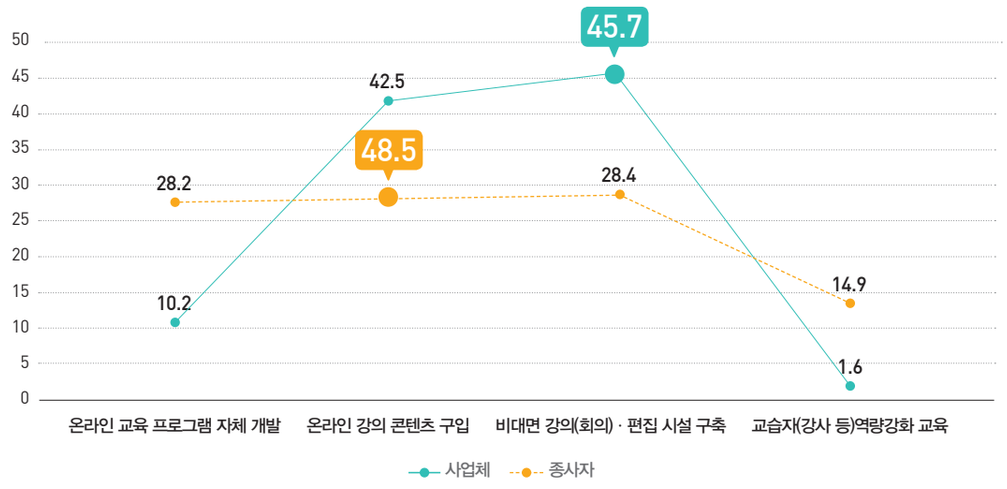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양적-질적 변화 예상 비교 |

기준 : 5점



| 비대면 · 디지털 서비스 전환에 따른 우선 투자 부문 비교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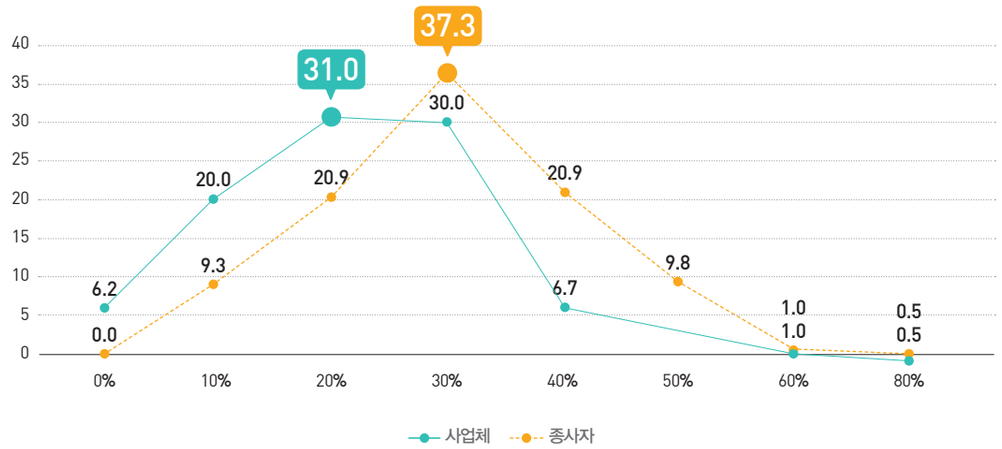


원격·재택 근무 도입 필요성은?

온라인 교육확대 등에 따른 원격 · 재택근무 도입 필요성은 20~30% 구간에서 응답 빈도가 높았으며, 종사자들이 사업주보다 재택근무에 긍정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향후 원격 · 재택근무 도입 필요성 비교 |

단위 : %, M=사업체 23.2%, 종사자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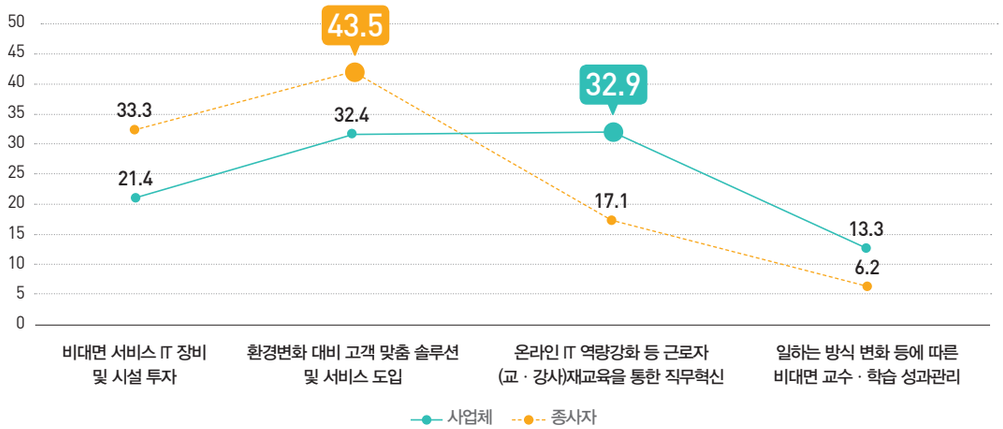


앞으로 일자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은?

미래 일자리 경쟁력 강화 해법으로 사업체는 환경변화에 대비한 고객 맞춤 솔루션 및 서비스 도입(43.5%)을, 종사자들은 직무혁신을 위한 근로자 재교육(32.9%)을 가장 강조했다.

| 미래 일자리 경쟁력 강화 대책 비교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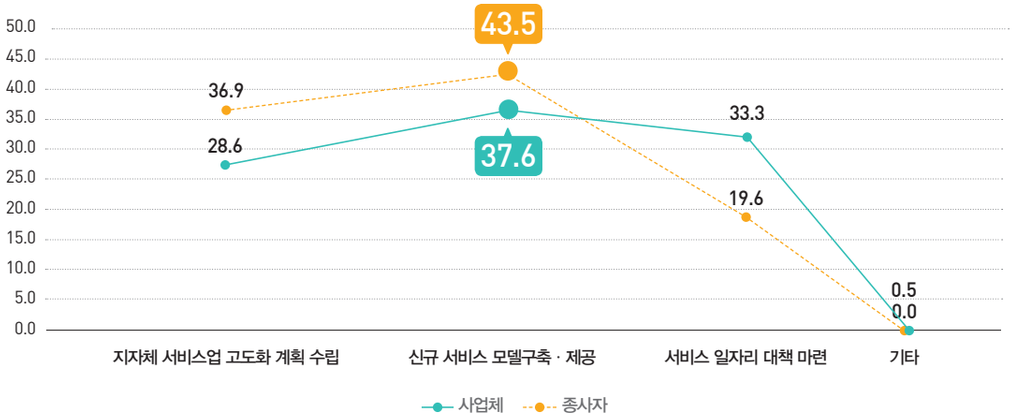


포스트코로나 시대 충청남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충청남도의 우선 추진정책으로 사업체(37.6%)와 종사자(43.5%) 모두 신규 서비스모델 구축 · 제공(디지털 · 온라인서비스 등)을 가장 우위에 두었다. 그 다음 순위로는 사업주의 경우 지자체 서비스업 고도화 계획 수립(36.9%)을, 종사자의 경우 서비스업 일자리 대책 마련(33.3%)이 차지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충남도 우선 정책 비교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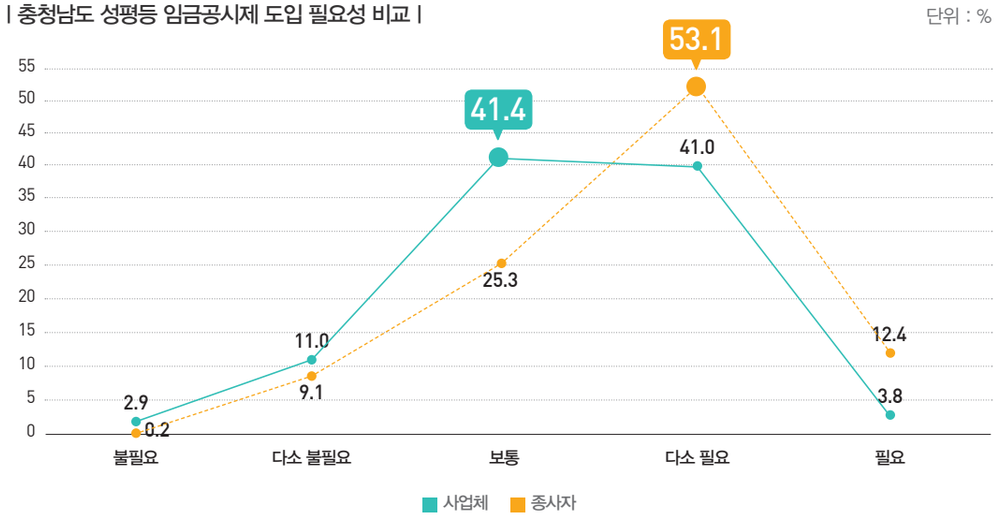


온라인 취업 알선 활성화와 워라밸 문화 확산 강조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질문에서는 '구인 · 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강화(사업체 39.0%, 종사자 25.3%)'를 가장 강조했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통과 다소 필요 등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또 충청남도가 재직 여성 고용유지를 위해 향후 확대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워라밸 일자리 문화 및 환경(사업체 26.7%, 종사자 20.5%)'이 가장 높았다.

| 충청남도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성 비교 |

단위 : %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언

- 여성인력개발센터 기업으로 찾아가는 일 · 생활균형사업이나 재직자 디지털 역량강화 훈련사업(경력개발지원과정) 추진
- 여성 일자리 기관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투자
- 교육서비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등의 직종 확대
- 재택근무 확대, 플랫폼 노동 확장이 불러온 새로운 범주의 사각지대 노동권리 매뉴얼 제작
-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 제정을 통한 충청남도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 재직자 직무혁신 교육방안, IT · 디지털 융합 신규 서비스업 경영모델 발굴 등 충청남도 서비스업 고도화 전략 수립

충남 아동·청소년 삶의 질 현황 및 실태 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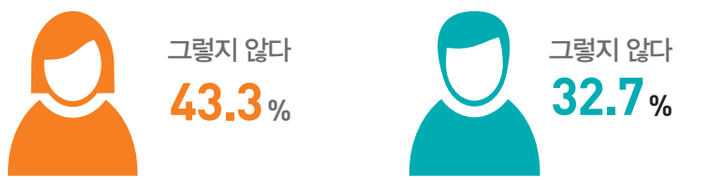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10~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10대의 자살률은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해 9.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동 ·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번 연구는 도내 15개 시 · 군 751명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와 이를 통해 도출한 정책제언 사항을 소개한다.

연구자 | 안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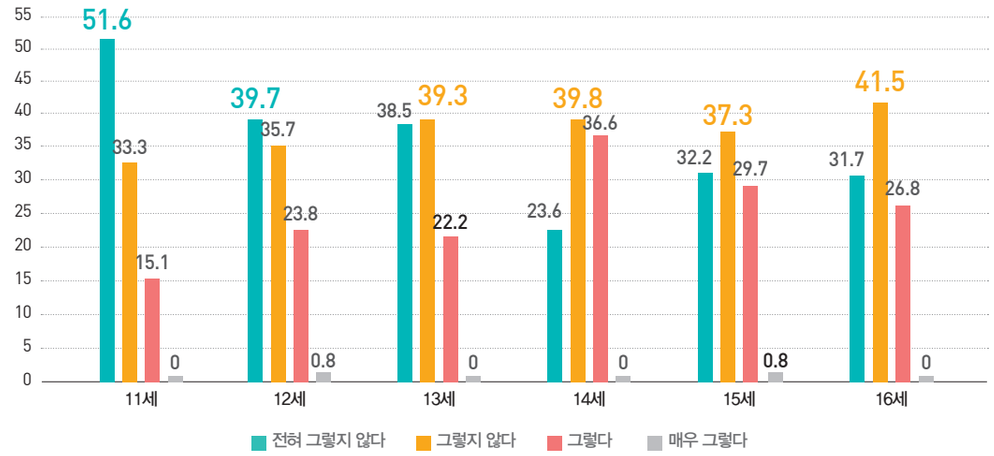
부모님과의 관계는?

'나는 보호자를 사랑한다'의 질문에 대한 연령별로는 12세(3.29%), 11세(3.27%), 13세(3.15%), 15세(3.08%), 16세(3.07%), 14세(3.06%) 순으로, 성별로는 여자(3.18%), 남자(3.1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에서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가까운 친구 중에 술을 자주 마시는 친구가 있다'에서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연령별로 16세가 1.90으로 가장 높으며 15세 1.86, 14세 1.84 순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에서도 14세 · 15세가 1.97로 가장 높으며 16세 1.94로 나타나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성별 · 연령별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비율 | 단위 :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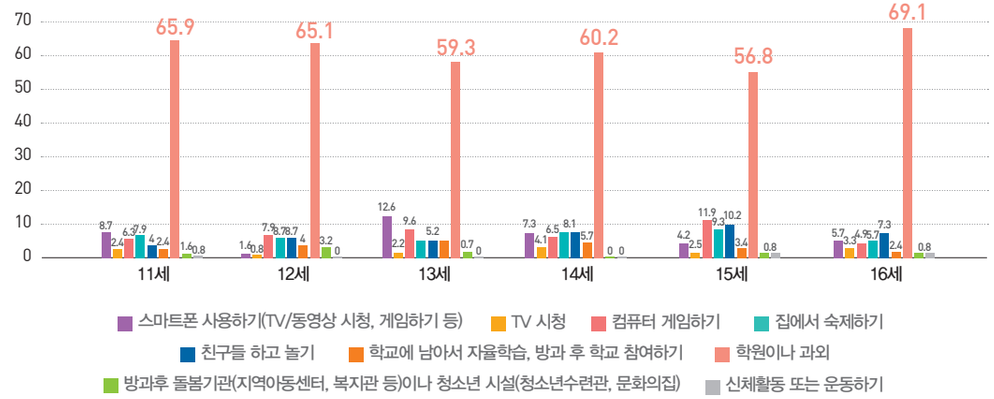


방과 후에는 어떤 활동을 할까?

방과 후 하는 활동(1순위)'은 주로 학원이나 과외(62.7%), 컴퓨터 게임(7.9%)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분포가 나타나는 학원 · 과외의 연령별 분포는 16세(69.1%), 11세(65.9%), 12세(65.1%), 14세(60.2%), 13세(59.3%), 15세(56.8%) 순으로 성별 분포는 여자(63.1%), 남자(62.4%)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 연령별 '방과 후 하는 활동(주로 했던 활동)(1순위)' 비율 | 단위 : %

여자 학원이나 과외 63.1 남자 학원이나 과외 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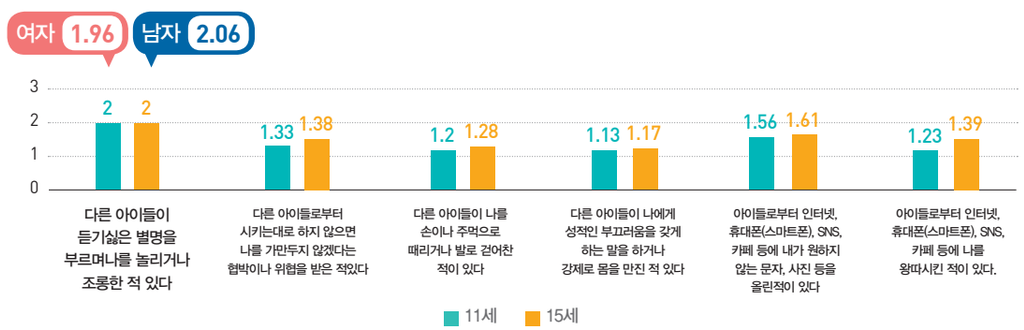


학교에서 나는 어떤 사람?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준 피해 사례에 대한 질문에는 '듣기 싫은 별명으로 놀리거나 조롱당한 경우(2.01%)'가 가장 많았고 최근 1년 동안 내가 다른 아이에게 준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역시 '듣기 싫은 별명으로 놀리거나 조롱한 경우(1.85%)'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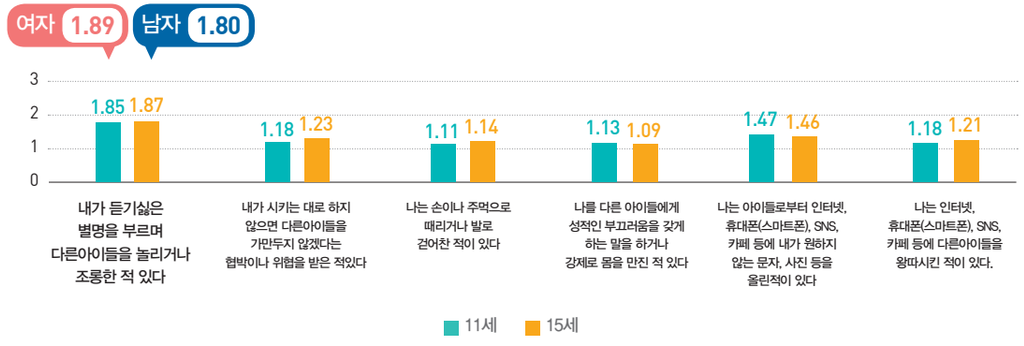
| 성별 · 연령별 '최근 1년내 학교에서의 경험(다른 아이들이)(전체)' 비율 |

단위 : %



| 성별 · 연령별 '최근 1년내 학교에서의 경험(다른 아이들에게)(전체)' 비율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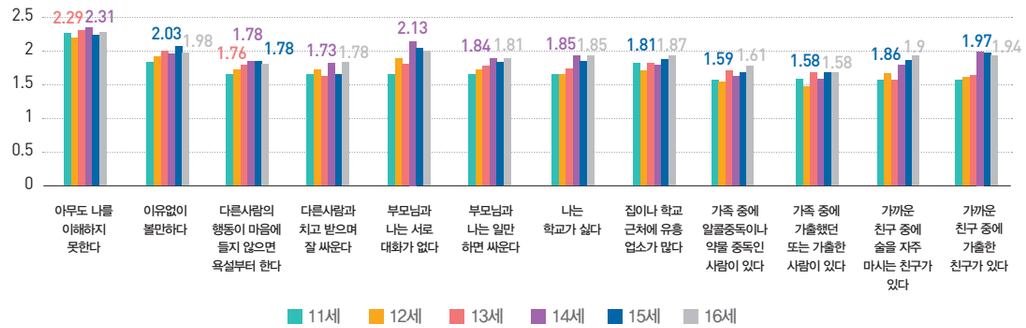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결과, 보호자의 행동,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평가, 보호자와의 관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불안요인(전체)'에서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2.24%)가 가장 높았고, '안정요인(전체)'에서는 나는 학교생활을 잘하고 싶다(3.12%)가 가장 높았다.

| 성별 · 연령별 '불안요인(전체)' 비율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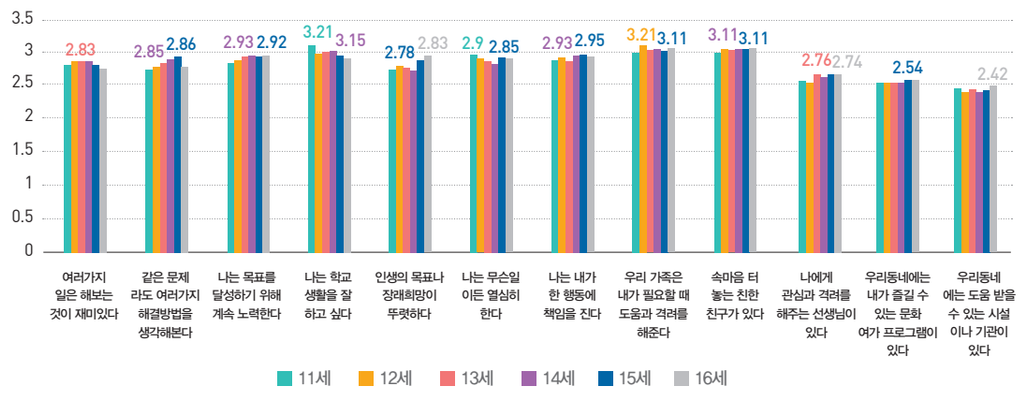
여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2.26
남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2.22



| 성별 · 연령별 '안정요인(전체)' 비율 |

단위 : %

여자 나는 학교생활을 잘하고 싶다 3.15
남자 나는 학교생활을 잘하고 싶다 3.10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언

- 시군별 각각 유해환경감시단 체계 구축
- 아동 · 청소년 보호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 도내 가족센터 기능 강화 및 디지털 기반 활동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인프라 부족지역 내 아동 청소년의 체험기반 확충
- 아동 · 청소년 사회참여 채널 및 진로 탐색 활로 확대

충남 아동 · 청소년 성매매 · 성폭력 피해실태 및 지원 방안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 등의 성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젠더 폭력 중 하나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충남 지역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 성폭력 관련 판례를 분석해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현재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찾아냈다. 이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충청남도가 강화해야 할 정책과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연구자 | **김영주(본원 수석연구위원)**

아동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 피해 유형

총 221건의 판례 분석 대상 중 성폭력은 151건, 디지털 성폭력은 36건, 성폭력+디지털 성폭력은 13건, 성매매 19건, 성매매+성폭력은 2건으로 성폭력이 68.3%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디지털 성폭력 16.3%, 성매매 8.6%,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5.9%, 성매매+성폭력 0.9%의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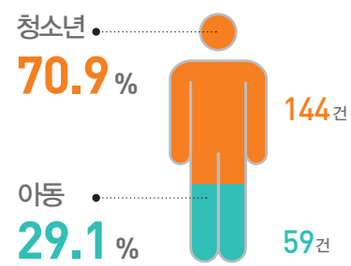
| 유형별 성매매 · 성폭력 피해 현황 |

구분	전체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성매매	성매매+성폭력
건수	**221** (100%)	**151** (68.3%)	**36** (16.3%)	**13** (5.9%)	**19** (8.6%)	**2**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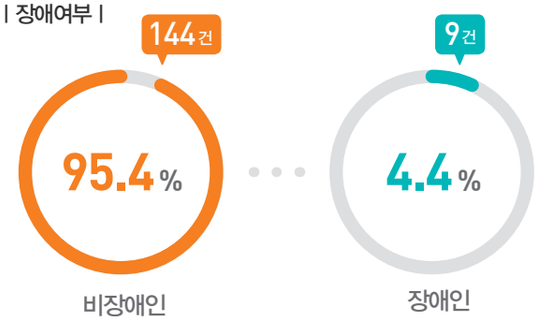
피해자 청소년과 여성이 대다수

전체 사례 수 중 피해자 수가 1명인 사건이 178건으로 87.7%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2명인 사건은 13건(6.4%), 3명 이상인 사건은 12건(5.9%)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196건(96.6%), 남성 7건(3.5%)으로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 피해자 연령범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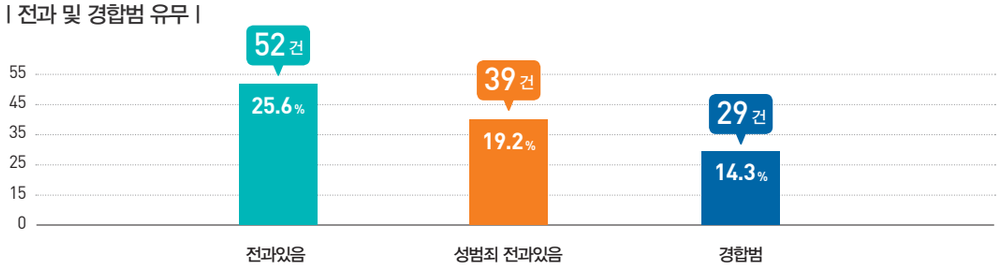
| 장애여부 |



가해자 남성 성인이 대다수

가해자인 피고인 특성으로는 피고인 수가 1명이 193건(95.1%), 2명이 3건(1.5%), 3명 이상이 7건(3.5%)이고, 피고인의 성별은 전부 남성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연령 범주는 성인이 190건(93.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미성년이 포함된 사건이 13건(6.4%)이었다.

| 전과 및 경합범 유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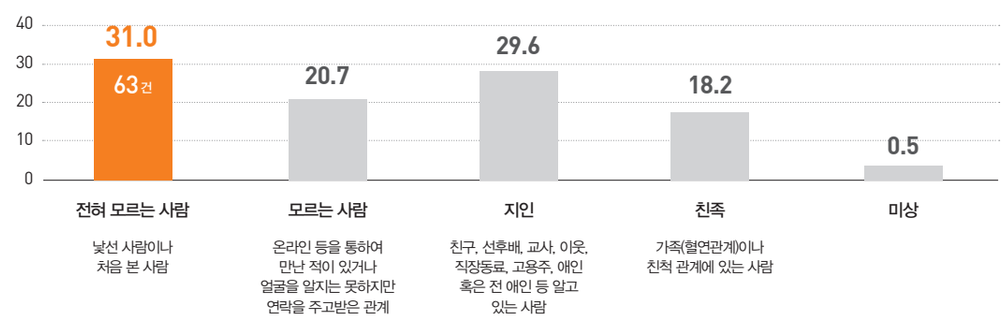


협박이나 강요가 없어 더 무서운 범죄

범죄의 특성에 대한 조사에서 '협박이나 강요 없음'이 142건으로 70%를 차지했다. 반면 '협박 또는 강제나 강요 있음'이 46건으로 22.7%, '폭력이나 폭행동반'이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 같은 통계를 통해 성범죄의 교묘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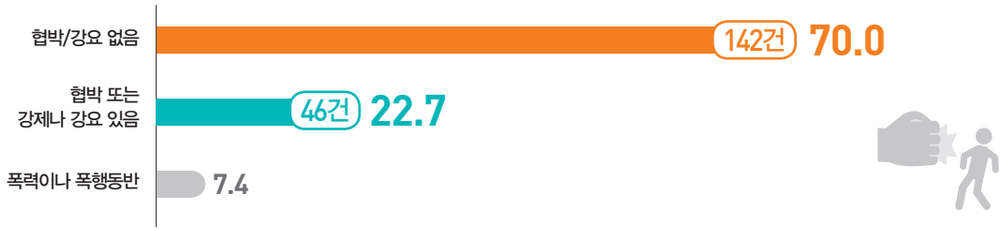
| 피해자 · 피고인의 관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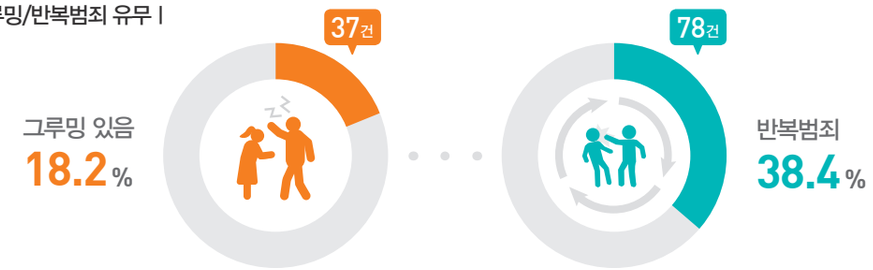
| 협박이나 강요 유무 범주 |

단위 : %



| 그루밍/반복범죄 유무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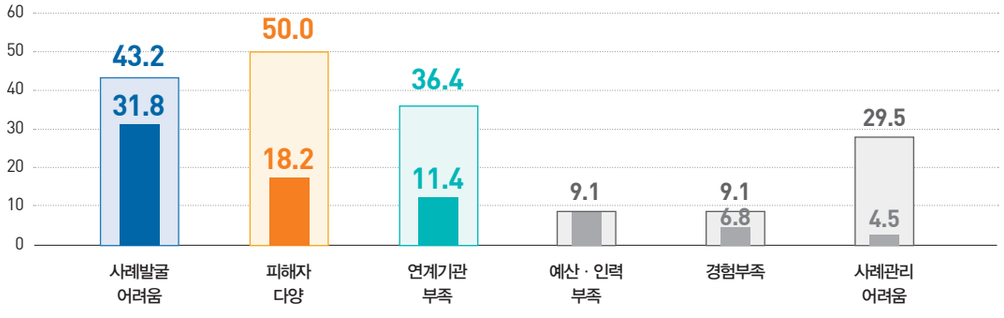


피해 지원 기관 현황 조사

전문가조사는 충남 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 성폭력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4개 기관이(기관 당 1명) 조사에 참여했다. 아동 ·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시 애로사항 중 1순위는 공통적으로 '사례발굴이 어렵다'가 31.8%로 가장 많았고 1, 2, 3순위를 모두 합한 비율을 보았을 때에는 '중복피해자나 피해자 특성이 다양해서 어렵다'가 50%로 가장 많았다.

| 아동 ·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시 애로사항 | 1순위 2순위 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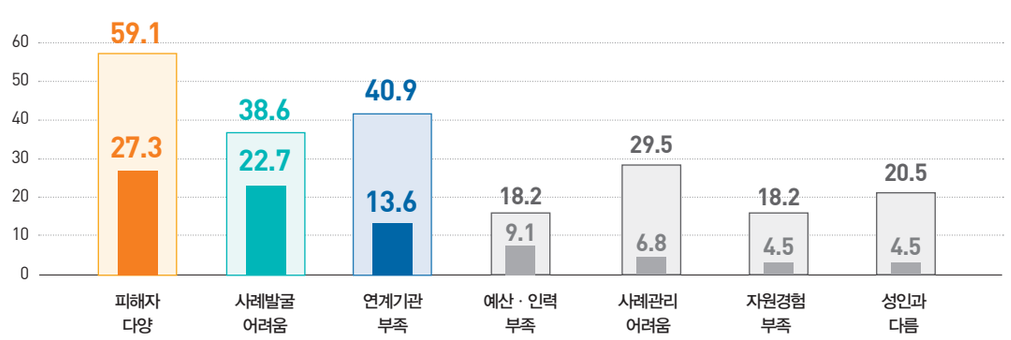
단위 : %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 지원 시 애로사항 1순위는 '중복피해자나 피해자의 특성이 다양해서 어렵다'가 27.3%로 가장 많았고, 1, 2, 3순위를 합한 비율에서는 전체적으로 '중복 피해자나 피해자의 특성이 다양해서 어렵다'가 59.1%로 가장 많았다.

|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 지원 시 애로사항 | 1순위 2순위 3순위

단위 :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은?

- 성매매 위기 청소년 발굴을 위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청소년 일시쉼터 설치 및 운영
- 도민 대상 공모 방식의 온라인 시민감시단 모집을 통한 성매매 홍보 및 알선사이트, 페이스북 메시지, 앱 등 모니터링과 신고 활동 촉진
- 충남 아동 ·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동 · 청소년 유관기관과 폭력 피해 지원기관, 사법기관이 참여하는 성 착취 방지 네트워크 운영
- 연1회 도 및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청소년쉼터(여자청소년) 종사자 대상 워크숍 실시
- 여성가족부, 경찰청과의 간담회 개최 및 정례적인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여 그루밍 행위 수사와 성착취 범죄 처벌 등에 대한 공조 체계 구축(중앙정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은?

- 현재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충남 디지털특화상담소'를 '충남 디지털성폭력지원센터(가칭)'로 확대
- 아동 ·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충남디지털특화상담소와 연계하여 시군 상담소, 보호시설, 기타 유관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디지털 성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워크숍 실시
- 복합피해 사례 지원을 위한 '광역 솔루션 네트워크' 운영
-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

2021년부터 달라진 정부의 여성·가족제도는 무엇?

올해도 여성 대상 흉악 범죄와 가정 내 아동 학대 사고는 꾸준히 매스컴을 달궜고, 여기저기서 발표하는 각 종 통계 수치는 돌봄 노동 속 여성인권 상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성계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정책은 또 하나의 긍정적 신호이자 작은 빛이기도 하다.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여성 · 가족 관련 제도와 법규를 소개한다.

01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종전

· 임시조치 관련

❶ 임시조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❷ 접근금지 범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최대 6개월, 연장 시 종전 처분기간 합산 최대 2년

· 제도 신설

· 법률 개정

변경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사람)에 대한 접근 금지 추가

➡ 최대 1년, 총 처분기간 최대 3년

➡ 유죄판결 받은 가해자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 이수 명령 추가, 미이수 시 형사 처벌

➡ 현행범 체포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

➡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 · 퇴거불응죄' 등 추가

02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종전

· 피해자에 대한 해고 이외에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 불명확

·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및 감사 등 7개 영역에 걸쳐 불이익한 행위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0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종전

· 지원시간 — 연 720시간

· 임시조치 관련

❶ 임시조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80%

❷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55%

❸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 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이하) — 75~85%

*한부모 및 장애부모 · 아동 가정 중 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시간제취학의 경우 5% 추가 지원

변경

➡ 연 840시간

➡ 85%

➡ 60%

➡ 80~90%

0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종전 20년 신규 설치 **350** 개소

변경 21년 신규 설치 **450** 개소

지원내용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6 ~ 12세 아동(초등학생)

지원형태 | 상시 · 일시 돌봄, 문화 · 예술 · 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돌봄공간 | 주민자치센터 · 복지관 · 도서관 · 보건소 등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 공간 활용

돌봄인력 | 상근 2인(관리자 · 돌봄선생님* 각 1인)

*돌봄선생님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인이 시간제 근무 가능

05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종전

·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공공 책임 미흡

변경

➡ 아동보호전문요원 배치, 상담 · 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 상황 점검, 사후 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보호

➡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시 · 군 · 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조사 및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 직접 수행

06 청년마을 조성 확대

종전 · 3곳 : 전남 목포(2018년), 충남 서천(2019년), 경북 문경(2020년)

변경 ➡ 총 12곳

지원내용

조성목적 | 지방 소멸 지역에 청년 유입 및 정착, 지역 활력 제고

지원내용 | ❶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 거주 · 창업 · 커뮤니티 공간 조성

❷ 지역 정착에 필요한 취 ·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❸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교류 활성화

07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종전 지원 대상(연) **6,177** 명

· 인턴 1인당 지원금 총 300만 원

– (기업) 인턴 지원금 240만 원

– (여성) 취업장려금 60만 원

변경 지원 대상(연) **7,777** 명

➡ 인턴 1인당 지원금 총 380만 원

[기업] 인턴 지원금 240만 원 + 새일고용장려금* 80만 원

[여성] 근속장려금* 60만 원

*인턴 종료 후 정규채용 6개월 경과 시 지급

0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종전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최초 부여 시, 1호 인센티브(월 10만 원) 지급

변경

➡ 육아휴직 부여 2, 3호까지 인센티브 추가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1~3호 인센티브 신설

09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종전

·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 중 사업장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로 지원 요건 판단

–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 보호하고 있는 가정 제외

변경

➡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로 변경

– 피보험자가 친권자 · 후견인 · 그 밖의 자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 포함

우리 지역 여성활동가들의 2021년 연구 이슈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성평등 문제를 지역의 여성이 직접 연구해 대안을 찾는 '작은 연구 study-UP' 공모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많은 연구 안건을 발굴하며 마무리됐다. '여성이 살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 된 이번 연구 사업에는 총 7팀이 지원한 가운데, 최종 4팀이 선정돼 4월말부터 9월까지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각 팀별 연구과제와 결과물을 소개한다.

논산 · 보령 · 홍성 · 공주

트롯의 가사 분석을 통한 성평등 연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롯 가사가 연구 대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사 속 성차별인 의미를 찾아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본다. 또 수동적인 여성상이 아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상을 제안하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홍성 **다문화 청년의 지역 소속감 연구**

다문화 2세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소속의 변화가 개인의 소속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러티브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혈통 중심의 민족주의 사회에서 법적인 거주 권리 중심의 시민주의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했다.

당진 **충남주민자치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목적은 당진시 주민자치회 회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인식 및 성평등 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마을 리더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여성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과 성평등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과 개론중심이 아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도출했다.

천안 **성평등 의식 변화 조사**

연구 목적은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실태 파악과 청소년의 성의식을 재조명하여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는 향후 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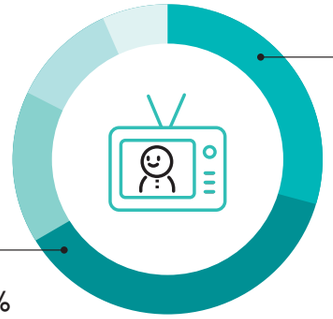
트롯 다시보기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많은 사람이 '트롯 경연대회를 보면서 우울감을 떨쳤다'고 말한다. 하지만 트롯 가사 속에 비춰지는 여성은 대부분 수동적이면서 소극적으로 그려질 때가 많다. 이번 연구에서는 트롯 노랫말 중에 수동적 여성상을 표현하거나, 불평등한 성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들을 간추리는 작업을 진행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여성상을 찾고자 했다.

트롯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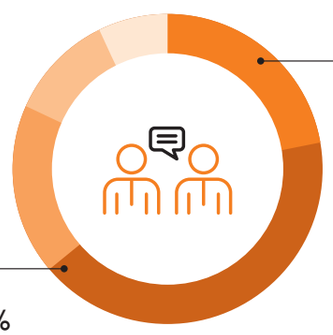
논산, 보령, 홍성, 공주, 서산, 당진, 예산, 태안, 청양, 천안, 아산, 부여, 계룡, 기타(서울, 대전, 세종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50여 명을 대상으로 트롯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Q 트롯 경연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시청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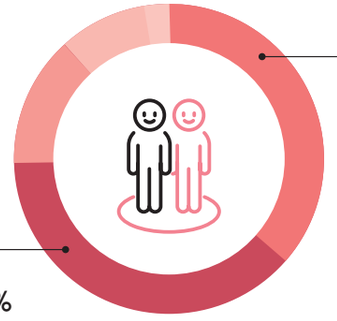
- 주 평균 1~2회 **150명 37.4%**
- 시청해본 적 없음 **123명 30.7%**
- 주 평균 3~4회 : 75명(18.7%)
- 주 평균 5~9회 : 31명(7.7%)
- 주 평균 10회 이상 : 22명(5.5%)

Q 일부 트롯 가사에 성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생각하나요?



- 보통이다 **150명 36.8%**
- 그렇다 **101명 24.7%**
- 그렇지 않다 : 91명(22.3%)
- 매우 그렇다 : 38명(9.2%)
- 전혀 그렇지 않다 : 29명(7%)

Q 트롯 가사가 좀 더 성평등한 내용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 필요하다 **153명 34.8%**
- 보통이다 **159명 36.1%**
- 매우 필요하다 : 71명(16.1%)
- 필요하지 않다 : 50명(11.4%)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7명(1.6%)

가사 속 문제의 단어

여자를 표현할 주로 사용하는 단어

수동적, 소극적, 착함(고운 마음씨), 헌신, 수절, 희생, 순정, 어린아이, 꽃잎, 기다림, 향기, 받아들임, 자존심 없음, 내 맘 보이지 마, 수줍음, 먹물, 화끈한, 예쁜척, 착한척, 내조

남자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

능동적, 적극적, 남자답게, 든든한, 자상함, 매너 있고 센스, 나무, 백전불패, 기대, 듬직한, 씩씩한, 황소, 금손, 해결사(히어로), 영웅, 강한 키스, 카사노바, 슬픔 표현 못함, 침묵

성차별적 외모를 표현한 단어

몸매 쭉쭉 빵빵, 샤방샤방, 핫팬츠, 하이힐, 빨간 사과, 여우, 비비각시(유랑녀), 바보, 어린 몸, 얼굴은 브이라인, 몸매는 에스라인

결론 및 정책 제언은?

젊은 세대 및 다양한 세대의 정서를 반영하는 가사와 새로운 볼거리가 시급하다. 경연 대회 참가자에 대한 나이 제한도 필요하며, 동심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동요'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끌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1 연구 과제

01 기본과제(8건)

	과제명	연구자
1	[전략] 충청남도 성평등 목표 수립 연구	태희원
2	[기초] 충남 남성의 양성평등 실태조사	맹준호
3	포스트 코로나시대 충남 서비스업 여성 일자리 변화와 대응방안	안수영
4	충남 아동 · 청소년 성매매 · 성폭력 피해실태 및 지원방안	김영주
5	충남 아동 · 청소년 삶의 질 현황 및 실태 분석 연구	안세아
6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임우연
7	충남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생활실태 조사연구	우복남
8	충남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연구	오민아

02 정책과제(10건)

	과제명	연구자
1	지방자치단체 필수노동자 정책사례 연구	안수영
2	충남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 연구	맹준호
3	충남풀뿌리여성 발굴 및 성장지원 프로젝트 성과분석(2018~2020)	조윤진, 허현진
4	충남 다문화가족 영유아기 자녀 한국어발달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 방안	우복남
5	충남 여성 긴급피난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김영주
6	충청남도 안전관련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안세아
7	충남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태희원
8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강화 방안 연구	임우연
9	충남 지역 여성기업인의 경영활동과 성과에 대한 사례 연구	오민아
10	충남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평등 장기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채민

03 공동연구(2건)

	과제명	연구자	공동기관
1	충남 새일센터 특화 직업교육훈련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연구	안수영	충남일자리진흥원
2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	안세아	충남청소년진흥원

04 현안과제(19건)

	과제명	연구자
1	1/4분기 의원발의 조례안 성별영향평가 검토	태희원외
2	2/4분기 의원발의 조례안 성별영향평가 검토	태희원외
3	3/4분기 의원발의 조례안 성별영향평가 검토	태희원외
4	4/4분기 의원발의 조례안 성별영향평가 검토	태희원외
5	2020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컨설팅	태희원외
6	시군 지역성평등지수 유공표창 심사 가이드라인	임우연
7	충청남도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조윤진
8	여성가족분야 미래사업 발굴	우복남외
9	금산군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 및 분석	김영주
10	홍성군 성평등 조직문화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안세아
11	충남여성가족플라자 프로그램 연구	이채민
12	홍성군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이정윤외
13	충남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태희원외
14	아산시 성평등 조직문화 설문조사 자문 및 분석	우복남
15	제20대 대선 관련 여성가족분야 공약과제 발굴	김영주외
16	성인지 예산서 성과지표 개선	태희원외
17	제20대 대선 관련 정책지역 공약과제 발굴	우복남외
18	2020년도 도내 시군별, 연령별 경력단절여성 규모 분석	안수영
19	2021년도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성별, 직렬별 승진 소요 연수 비교분석	오민아

05 수탁과제(11건)

	과제명	연구자	발주기관
1	충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위탁	태희원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천안시 성인지 통계	안세아	천안시
3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인권실태조사	김영주외	도 인권센터
4	홍성군가족센터 운영방안 연구	임우연	홍성군
5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활성화 방안 연구	태희원외	농림축산식품부
6	논산시 청소년행복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우복남외	논산시
7	양성평등의식&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이경하외	해군본부
8	괴산군 여성친화대학 성평등강사단 심화교육	조윤진외	괴산군
9	제5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	송미영외	충남도 사회복지과
10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실태 및 충남형 일자리 발굴	안수영외	여성가족정책관
11	금산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분석	조윤진	금산군

SHARE

공유하며

인큐베이팅 2021 46

인큐베이팅 zoom-in 48
찾아가는 인권 영화제 토론현장

찾아가는 풀뿌리 자치학교 52
백래시를 대하는 당신의 자세

젠더포럼 56
코로나19이후, 돌봄을 돌[아]보다

돌봄현장 60
코로나19가 남긴 흔적

성평등 확산의 작은 씨앗

2021 인큐베이팅 Start-Up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에 맞는 사람 삼삼오오가 모여 작은 시도를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더 큰 도전을 하는 가운데 가치는 확산되어 나간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들의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해왔다. 선정된 소모임은 300만 원 이내의 사업비와 사업 기획부터 실행,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받는다. 2021년, 신박한 아이템과 뜨거운 열정으로 사업에 참가한 6개의 소모임을 소개한다.

찾아가는 여성 인권영화제
성평등 연대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를 영화 관람을 통해 알아보고, 관람 후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여성 인권 증진 방안을 찾아낸다. 이 같은 활동을 지속하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지역사회에 인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린다.

취미생활을 통한 심리치료
여성장애인 비단뫼팀

여성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감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삶의 만족도와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킨다. 미술심리치료, 비즈공예 등 취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여성장애인이 그동안 겪어왔던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

다함께 같이 걸어가는 길
행복한 미래

지역 이주민센터에는 통역봉사자, 충남외국인주민콜센터 등이 갖춰져 지역 이주민 여성이 이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지만 상담 내용이 길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행복한 미래' 팀은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언어능력 교육,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에 관한 노동법률 및 생활에 필요한 법률, 여성인권교육을 진행해 이주민 여성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여성주의 리더십 '함께 빛나는 우리'
공주책읽는 여성행동(공책여행)

지난 2년 간 공책여행은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페미니즘 동네책방 '나, 됨'을 만들고, 다양한 지역 여성들을 만나 함께 치유하고 공감하며 여성 연대의 물꼬를 텄다. 올해는 나다움을 찾은 여성들이 여성주의 활동가로서의 리더십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3년 간의 인큐베이팅 사업을 담은 활동기록지를 제작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여성단체 구성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여성활동가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당찬 당진 당신!
당진풀뿌리 여성연대

여성들이 소그룹을 형성해 페미니즘 도서를 함께 읽고 휴먼라이브러리(사람책[1])를 만나 인터뷰를 통해 여성주의를 깊게 체감한다. 타지역의 여성활동가들과 연대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체험하고 전문여성활동가로 역량을 키워나간다. 2022년에도 '안다, 학습한다, 가본다, 만난다, 실천한다, 나눈다'라는 전략 아래 지역 여성 활동가의 구심점을 형성해 가고 있다.

1) 책 대신 특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책'을 대여해 주는 신개념 도서관서비스다. 독자들은 도서관에 준비된 사람책 목록 중에서 읽고 싶은 사람책을 골라 대출하고, 정해진 시간에 만나 자유로이 대화하며 정보를 전달받게 된다

충남 비혼여성 HOLO 생활 사업
비행성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한 20~40대 비혼 여성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경제와 문화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을 지키는 셀프디펜스 수업과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경제 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청 · 장년 여성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본 여성인권의 현실

사진 출처 | 영화 '82년생 김지영' 중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평범해 보이는 한 여성의 삶을 재조명하며 그 속에 감춰진 수많은 선입견과 차별, 불합리를 끄집어낸다. 괜찮은 것 같지만 결코 괜찮지 않은 영화 속 불편한 상황들. 많은 여성이 그러려니 넘겼던 많은 문제가 결국 남성 위주의 관습과 편견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당진 성평등연대가 주관한 '찾아가는 여성인권 영화제'를 찾아가 영화에 대한 지역 여성들의 견해와 의견을 들어봤다.

이번 토론회는 신순옥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장이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최연숙 성평등 강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세대간 답습되는 불평등

신순옥_ 이 영화는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돼야 할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많은 점에 공감했는데요. 특히 친정아버지가 딸들 것은 잊고 아들의 한약만 사온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친정 모습과 비슷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작 이 시대의 부모는 이런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한편으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평등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봤습니다.

장미순_ 친정아버지가 지영이는 단팥빵을 좋아한다며 남동생 편에 빵을 보냈지만, 지영이 남동생에게 '크림빵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부모로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막상 내 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친구가 몇 명인지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제가 클 때만 해도 '아들, 아들'했던 시대였는데, 그런 시절을 겪은 사람 입장에서 가슴에 너무 와 닿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성경_ 저도 1남 4녀 중 장녀인데 막내가 아들이라 할머니께서 '아들, 아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들과 딸을 낳아 기르고 있는데, 어린 시절 기억 때문인지 의식적으로 아들에게 집안일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왜 저한테만 시키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제 입장에서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최연숙_ 저 역시 딸 다섯 명에 아들 한 명인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만 외식을 시킬 정도로 차별이 있던 집안이었지요. 이런 상황은 결혼을 해서도 잘 변하지 않더군요. 사회분위기가 육아는 오롯이 여성의 몫이라 강조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깨기 위해 제 아들에게도 가사 노동을 쭉 강조해 왔습니다.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삼시세끼 밥과 가사 분담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어릴 때부터 가사 분담의 중요성과 협업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명절문화는 그대로

김주현_ 주인공이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는 장면을 보면서 며느리로서 너무 공감하고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명절에 일찍 친정에 가고 싶지만 어르신들과 남편의 강요로 원하는 시간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최연숙_ 통계를 살펴보면 명절 이후 이혼건수와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명절 관습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설날과 추석, 두 번의 명절 중 한 번은 시댁에 가고, 한 번은 친정에 가는 등 나눠서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듯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순옥_ 우리나라는 성평등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와 기대가 있지만 구조적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쪽만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닌, 서로가 함께 노력할 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심의 근본은?

여선미_ 영화를 보며 여성의 수치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보통 화장실 몰카나 성관계 영상 촬영도 남성이 여성의 몸을 보기 위해 찍지 여성이 찍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 뒤에서 몰카를 찍으려고 시도하는 남자가 있어 피한 적이 있는데요. 순간 수치심을 느껴 바로 경찰에 신고를 못해 두고두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의 대상이 된 것이 마치 여성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순옥_ 이 문제는 여성의 몸을 상품화 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회 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곧 여성이고 가해자는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이 겪는 차별에 대해 주로 얘기

를 했는데요. 혹시 남성 관람객 중에 역차별 문제에 대해 논하실 분이 계신가요?

역차별에 대한 시각 차이

윤식현_ 대표적인 역차별은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허리디스크로 고3때 부터 대학교 때까지 고생을 하다 결국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는데요. 근무를 하다보면 '꿀 보직에 있으니 더 잘하라'는 여성분의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욱한 마음에 여성의 군복무 면제 이유를 찾아봤는데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것'이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도 신체 4등급을 받고 건강하지 못해서 강제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인데, 여성이 면제되는 사유가 좀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최연숙_ 이 경우에는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별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심지어 공장의 같은 생산라인에 근무하는데,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70%인 것으로 나타날 정도니까요. 군대 문제는 출산과 돌봄 부분에서 차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해 서로 배려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병제로 가는 분위기이니 이 문제는 좀 더 기다려 볼 필요도 있고요.

저평가되는 여성의 가사노동

이채원_ 저는 주인공이 양육 부분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제 경우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나라에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데요. 하지만 아이들의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요.

최연숙_ 아이가 커갈수록 엄마의 노고가 덜하다는 잘못된 이해가 정책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하는 것인데요. 최근 많은 전업주부가 집에 있어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정책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집에서 양육을 해도 7세 아동까지 충분히 양육비가 지원돼야 엄마들의 자긍심도 올라가고 가정에서의 양육비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신순옥_ 오늘 많은 분의 의견을 통해 우리사회 성인지 감수성의 현황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참여한 모든 분이 영화를 통해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발 앞서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백래시’를 대하는 당신의 자세

2021 찾아가는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백래시는 진보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 심리나 행동을 이르는 말로 ‘여혐’이나 ‘이대남’ 등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페미니즘 백래시’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찾아가는 충남여성풀뿌리자치학교’에서는 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이 참여해 백래시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여성인권을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지역 여성 활동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지학 소장의 명쾌하고 속 시원한 강의 속에서 하나씩 해답을 찾아봤다.

모성의 신화와 인권 착취

드라마나 영화, TV 광고 속에서 흔히 접하는 엄마의 캐릭터 안에는 ‘모성애’가 필연적으로 내제돼 있다. 마치 여성 스스로 엄마가 되는 것이 좋아서 선택한 것처럼 표현하며, 양육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식하게 만들기도 한다. 가부장제 사회가 강요하는 모성의 신화는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에서의 인권착취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위력이 있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는 남성이 살아가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가부장제는 남성에게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요한다. 남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강요는 가부장제가 만들어 낸 또 하나의 허상이기도 하다.

성교육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든다고?!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사업 중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다움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도서보급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출판된 해외 도서 134권을 골라 도서 신청 초등학교로 보내는 작업을 수행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원 도서 중 일부가 조기 성애화와 동성애를 미화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 많은 논란을 낳았고 여성가족부는 사업을 즉시 중단했다. 논란이 됐던 책의 내용은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를 일러스트로 그대로 노출한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자극적이라는 것이 비판의 이유다. 하지만 해당 도서는 출간된 지 50년이나 된 도서로 결혼과 임신을 전제로 한 성관계만 설명하고 있는 보수적인 책이다. 이번 논란은 아이들의 성장속도를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의 결과이며, 세상과 괴리된 정책을 만드는 정치권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대체적으로 성폭력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많은 학생이 성을 폭력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해야 하는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인권이 밑바탕에 깔린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성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이뤄지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점을 아이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이름만으로 가지는 권리이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출현한 자본가 집단은 왕과 귀족의 권위에 도전하며 사회계약론을 통해 인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17세기부터 인권 담론이 생기며 시민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집단이 모여 대화하며 정책을 만들어 가는 직접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여성은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고 인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었다. 오늘날 여성 인권을 따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인권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여성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즉 남성가족부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남성이 인권의 기본값으로 특권을 받아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간혹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페미니스트에게 퍼주는 예산이 35조에 이른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은 1.2조로 정부 전체 예산 중 0.2%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퇴행적 부서라는 주장 또한 거짓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도 여성가족부가 존재한다. 또 일부에서는 여성고용할당제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고용과 관련해서 실제 이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홀수 할당제가 있으며, 자산총액 2조 이상의 주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성임원할당제가 있을 뿐이다.

역차별이란 무엇인가?

역차별은 소수자의 정책이 너무 좋아 다수를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정책이 너무 좋아 남성이 피해를 본다거나 장애인 정책이 너무 좋아 비장애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의 일부 여성정책은 차별해소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가 대부분이면 성평등이 이뤄지면 해제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차별이라 말할 수 없다.

구조 안에서 타인을 바라보기, 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이 운영하는 다양성연구소는 권력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하는 시도를 하는 곳이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어울려 사는 만큼 여러 정체성이 존재한다. 간혹 내가 가진 정체성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차별을 할 수도 있다. 다양성연구소는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곳이다.

2021 풀뿌리자치학교에 대한 짧은 리뷰

| 천안 안경숙 |

일상 속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나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강사님들이 기대한 만큼 그 이상으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상 속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나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슈화해서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공주 정영수 |

그동안 너무 허둥지둥 살았는데, 이제부터 제 자신을 위해 오롯이 시간을 투자하며 여유 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번 교육을 받은 후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습니다. 가족들 챙기느라 그동안 너무 허둥지둥 살았는데, 이제부터 제 자신을 위해 오롯이 시간을 투자하며 여유 있게 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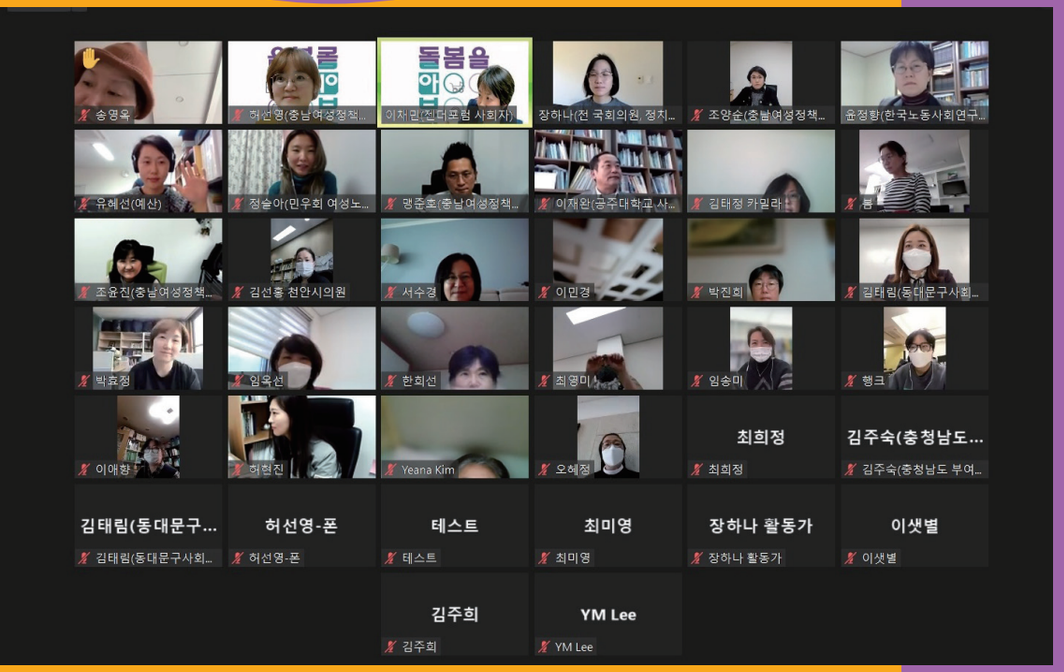
| 공주 윤혜민 |

김 소장님의 강의를 듣는 내내 남편을 데리고 오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동안 성평등 교육을 꾸준히 들어왔지만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교육에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김지학 소장님의 강의에서는 '남성 강사의 페미니즘 담론이 여성 강사님 못지않게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소장님의 강의를 듣는 내내 남편을 데리고 오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돌봄을 돌[아]보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교육과 돌봄, 성별,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돌봄에 대한 책무를 여성에게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경제 활동 기회의 성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21년 젠더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돌봄'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며,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노멀 시대 복지의 방향,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 포럼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했다.



지정토론 참여자
이재완, 윤정향, 정슬아,
김태림, 맹준호, 조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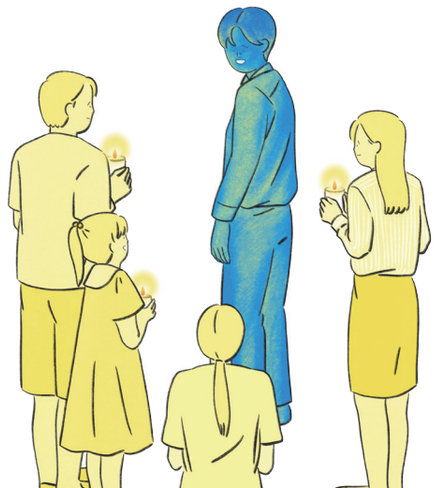
'젠더포럼'은 해마다 젠더 관련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 및 활동가가 참여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돌봄 담론 활성화를 위해 '돌봄을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 시간에는 '코로나 뉴노멀 (New Normal) 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와 방향'을 주제로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재완 교수가 참여했다. 이어서 '사회적 돌봄 의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정향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은 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정슬아 팀장이 '코로나19 돌봄 공백과 여성 노동의 위기'에 대한 내용으로 참여했으며,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가 '사회적 모성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태림 선임매니저가 '사회적 경제로 돌봄 공백 대안을 모색했던 사례'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맹준호 연구위원이 '보편적 가치로써의 돌봄(남성 자살률 증가와 돌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양순 원장은 "휴교와 개교가 반복되면서 부모의 경제 활동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가정에서는 고립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포럼의 주제를 돌봄으로 선정했다. 이를 계기로 돌봄의 공공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발제1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지역사회 복지와 방향

이재환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디지털 문명을 누리는 자와 못 누리는 자가 양분화되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무인화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사용방법이나 인터넷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또 최근사회복지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공간의 협소함과 폐쇄성이 원인으로 공간의 재구조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요양보호사가 의사나 간호사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률과 치사율 높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돌봄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복지가 통합적으로 작동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발제2

사회적 돌봄 의제를 위한 제언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돌봄 공백 현상과 이용자와 노동자 간의 학대와 방치, 성별 및 지역 간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위기를 통해 돌봄 분담 관계의 허점이 노출됐으며 이제 돌봄의 책임과 역할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할 시점이다.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용양기관 등의 영역은 민간 영리 기관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국공립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및 노인 국공립 돌봄 시설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국 · 공립 보육시설과 노인시설요양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데, 이것은 국 · 공립 시설이 종사자 처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 확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돌봄의 영역을 국가의 주요 산업 정책으로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 정책을 통해 의료 분야에서의 바이오 신기술 부분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돌봄의 경제적 생산가치는 GDP 대비 약 3% 정도로 추산된다.

지정토론 시간

새로운 시대를 읽고 변화를 모색하다

시민단체와 연구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뉴노멀 시대의 변화를 읽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제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돌봄 공백과 여성 노동의 위기

＋ **정승아** 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중에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 모두가 인터넷이 설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 남녀 모두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여성이 주로 돌봄을 맡으며, 여성이 해결사로 호명되는 상황. 지역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가 온다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역할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제도가 확대되지 않는 한 이같은 사회를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 모성이 필요하다

＋ **정하나** 전 국회의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기관 등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라 생각한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공단을 만들어 돌봄 노종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돌볼 권리를 원하는 여성에게도 '본인이 직접 돌볼 것'인지 '공적 서비스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 하지만 정작 많은 여성이 일터에서는 '직접 돌보고 싶다'는 티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돌봄 교실이 문을 닫으면서 많은 여성이 실직했다. 충청남도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역 내 여성노동자의 유급 육아시간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

사회적경제 돌봄 사례 공유

서울시에서 진행한 '같이 살림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형 돌봄'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비대면 활동이 어려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생님을 단지 내에서 발굴해 자체 개발한 앱을 통해 활성화 시키는 사업을 진행했다. 아파트 단지 내 고용단절 여성 18명이 참여했고 13명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돌봄 플러스'라는 앱을 개발해 돌봄 서비스 등록과 주민 서비스 신청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돌봄 선생님 활동 가능 시간과 서비스 신청자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간 조율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수요와 공급이 맞는다면 주민자생 돌봄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김태림** 동대문구사회경제지원센터 선임매니저

한국의 자살 현황과 돌봄

최근 2년 사이 40대 이하 청년층 자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이라 판단된다. 돌봄이 '일상생활에서의 생명 유지를 위한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자립이 힘든 사람을 어떻게 서비스의 대상으로 포함시킬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리스크를 오로지 스스로 해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은 사회적 책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공공재를 활용해서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 자살은 누군가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자살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주위의 관심으로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방문이나 상담 등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

＋ **맹준호**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코로나19가 남긴 흔적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총 노동시간이
남성의 경우 2.2시간 감소한 반면 여성은 1.6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 시간도 남성은 총 1.8시간에 그쳤지만 여성은 6.7시간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노동 환경이 재편되고 있지만
돌봄 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과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돌봄 현장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다섯 여성의 사례 속에서
뒷걸음질 하는 여성인권의 현주소를 낱낱이 알아본다.

의료 현장, 재앙의 결과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김현옥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간호사

업무상 어려움은 더 늘었다. 타 직종의 직원들과 확진자 접촉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며 본 업무 이외의 다양한 업무가 당연하듯 간호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입원할 침상을 준비한 후 구급차량에서부터 환자를 인도받아 병실 안까지 안내하고, 기본

간호를 시작으로 혈액 채취, 주사 처치 등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식사배식, 식사보조, 물 배달, 와상환자 기저귀 교체,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폐기물) 정리, 퇴원 후 병실과 화장실 청소 등 원내에서 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심지어 병실에 들어온 말벌을 잡아주거나 화장실 전등을 교체하고 막힌 화장실과 세면대도 뚫어주었다. 방호복을 입고 있는 자체로도 답답하고 숨이 차며 체력소모가 극심한데 과중한 업무는 너무나 힘이 들고 지쳤다. 코로나 블루를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짧게는 10일, 길게는 한 달 이상 병실 안에 갇혀 지내는 환자 중에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들은 주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여기서 내보내 주지 않으면 창문에서 뛰어 내릴 거에요", "아이가 자살하고 싶다며 울면서 전화해요. 왜 퇴원시키지 않는 거죠?" 등 불안감을 내비치는데, 이럴 때는 좁은 병실이지만 조금이라도 활동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

를 한다.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국가가 지역 간의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감염병에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공공의료계도 앞으로 다른 신종 감염병이 나타나더라도 더 냉철하게 처리하며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엄마

김윤아 예아모 마을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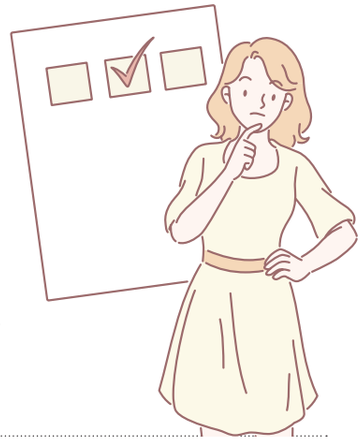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교가 중지되고 온라인학습으로 대체되면서 5남매 중 4명이 집에서 온라인학습을 하다 보니 데스크탑 컴퓨터, 테블릿PC, 노트북 등을 총동원해야 했다. 내가 출근하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자 아이들이 "자기는 무엇으로 공부 하냐"며 전화가 온다. 번갈아가며 수업을 듣고 있지만 동시간대 서버가 몰리다보니 접속이 잘되지 않아 퇴근하고 돌아와 아이들 온라인학습을 다시 봐줘야 했다. 작년부터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해 퇴근 전까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신경 쓰며 정신없이 하루를 살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자녀 엄마의 할 일은 2배가 되었고 임신과 출산, 어린이집을 끝마치고 드디어 사회로 나왔는데 아이들 돌봄을 위해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하나 하는 현타가 오기도 한다. 집에 있는 아이들의 삼시세끼 부식비는 증가하고 쌓여가는 설거지와 다시 어질러지는 집안, 어쩌다 집안 일 분배를 요구하면 남편은 나의 사회생활을 못마땅해 한다. 엄마이지만 오롯이 나로서 살아가고 싶은 작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정말이지 머리카락을 뽑아 나를 하나 더 만드는 머털도사의 분신술 능력이 탐이 난다. 나는 초등돌봄을 하는 마을학교 대표이자 마을 교사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 출근하는 마을교사들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이는 초등학교 이하 학생을 둔 모든 선생님의 고민과 걱정이 아닐까 싶다. 제도적인 문제해결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 돌봄, 돌봄 민주주의

이은영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전 대표/프리랜서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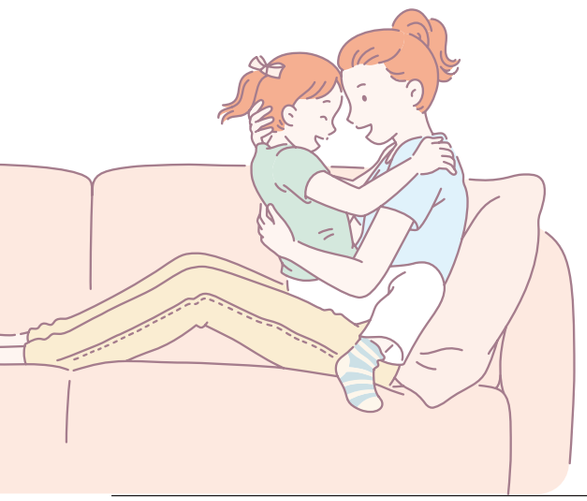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같은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고, 코로나19 이후엔 돌봄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이며 여성의 경우 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경우에만 이런 혜택에 기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제 돌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회안전

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맞벌이가구인지, 저소득가구인지 식별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추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돌봄이 필요한 곳에 돌봄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코로나19를 겪은 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이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다른 팬데믹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돌봄노동은 노동으로써 그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고 고용의 불안전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화, 돌봄사업에 대한 통일적 관리, 노동시간 단축 등 '돌볼 권리'를 보장하고 진정한 돌봄국가 건설을 위한 방향도 세워나가야 한다. 코로나19로 독박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들이 죄책감과 고립감, 두려운 감정들로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국가가 나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돌봄 민주주의로 전환해 나간다면 돌봄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블루의 원인이 아닌 행복의 일부가 될 것이다.



돌봄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

황경자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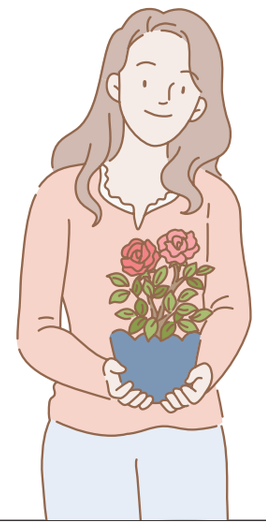


몇 년 전 나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역의 주민센터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여성장애인연대를 연결해 줬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여성 장애인 아동을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구체적으로 아이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돕는 일이었다. 일은 너무 고되고 힘들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떠나 진정성 있는 돌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나의 손길이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며 자신감을 얻고 뿌듯함까지 느꼈다. 이후 그곳을 시작으로 여러 명의 중증 장애인을 돌보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애인이 자가 격리되는 동안 바우처를 찍어야 하는 나도 2주 동안 일자리를 잃으며 격리 아닌 격리를 하기도 했다. 생계에 타격이 오며 모든 상황이 너무 갑갑하기만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모든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넣어 꼼짝도 못하게 만든 것이다.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고 있다고 하지만 장애아나 돌봄 종사자에게는 힘든 날이 지속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돌봄 종사자의 급여는 일정 수준 보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어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크나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에 늘 보람된 마음으로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돌봄 현장에도 봄날이 오기를

김현아 요양보호사

코로나19로 돌봄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한번은 출근을 해 보호자와 통화를 하는데 내 목소리를 듣더니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며, "코로나19나 감기 증상이 아니냐"고 물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던 적도 있다. 그만큼 걱정과 우려가 늘어난 것이다.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항상 챙기는 것은 물론, 가정에 들어가서도 가족과 대화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됐지만, 실내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노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재가센터의 요양서비스종사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업무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월100만 원 수준의 저임금을 받으며 심지어 고용 불안까지 느끼고 있다. 경제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급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 서비스원 요양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소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근무 스케줄표에 따른 '시간급' 임금을 적용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나름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제적 안정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업무강도와 감염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돌봄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 경제적 처우가 좀 더 개선되기를 바란다.



이야기로

개원 22주년 기념세미나
저출생,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66

홈커밍데이 스케치 72

CWPDI cowork
유관순연구소 공동학술대회 76

북 스토리
연구원 추천 도서 78

저출생,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개원 22주년 기념세미나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출생율 저하 현상은 정부 주도의 '출산율 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심화되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4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족 가치'와 '생명 존중'을 강조하며 여성에게 책임감을 증폭시킨 정책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지난해 '저출산'을 대체한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국회에 등장한 것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출산 당사자를 존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여성정책개발원 개원 22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지난 7월 1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22주년 세미나에서는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 저출생 해결 방안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저출생,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일자리진흥원 이시우 원장 등 충남도내 · 외 내빈과 지역사회 청년, 관련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조양순 원장은 환영사에서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그 해답을 찾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충남 도정의 역점 과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연구와 교육사업들을 보완하여 적극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영상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큰 책임을 느끼고, 청년의 삶이 행복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충남을 만들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전문가 발제 시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생가족연구센터 김은정 부연구위원이 '가족형성과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함의'라는 주제로 저출생에 대한 연령별 · 성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는 '젠더 관계 변화로 본 저출생과 돌봄'이라는 주제로 기존 저출생과 고령화 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표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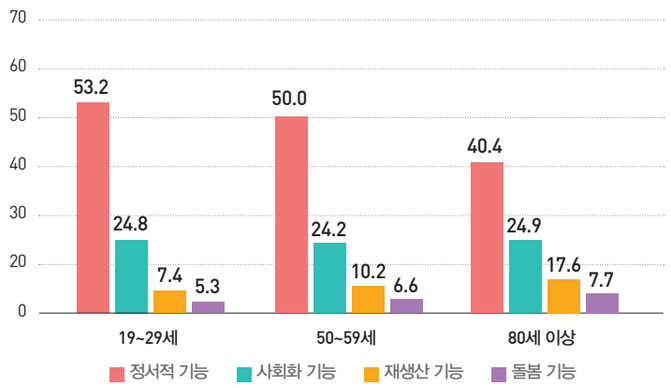
지정 토론 시간에는 송미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기획조정실장이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임우연 선임연구위원,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 전하연 이사,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성진 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충남정치하는 엄마들 유혜선 활동가,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 출산지원팀 임재란 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을 지켜본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손선우 SNS기자는 "저출생 문제가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다"며 "이런 세미나가 활성화 돼 지도층이나 정치권에서도 참고해 제도 및 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세미나에 참석한 김단 콘텐츠 매니저도 "연구 발제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저출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며 "그저 결혼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식의 정책은 요즘 청년의 단면만을 본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요즘 청년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족형성과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함의

| 가족기능에 대한 인식 | (%)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혼인 상태	기혼	미혼
정서적 기능	47.9	52.8
사회화 기능	26.8	24.0
재생산 기능	10.8	7.6
돌봄 기능	5.7	5.6

* **젊은층**일수록 정서적 기능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고 재생산 기능, 돌봄기능에 대한 응답비율이 낮음
* **미혼**의 경우 정서적 기능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고, 재생산 기능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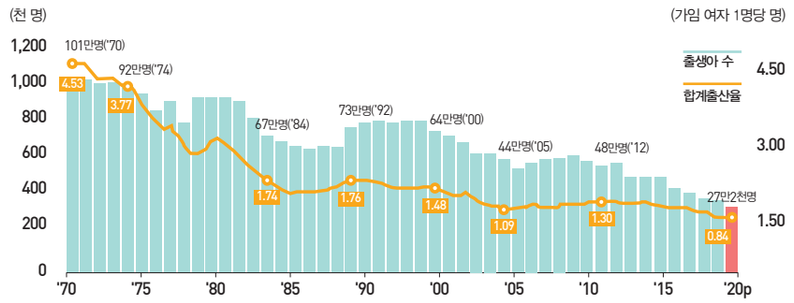
적절한 사회 환경 조성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 가능

+ **김은정**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생가족연구센터

세미나 발제에서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한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에 대한 심층 조사 결과 중 '저출산과 관련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목적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묻는 질문에 대해 20대 응답자의 53.2%와 30대 응답자의 49.3%가 '정서적 기능'이라 답했다. 한편 '재생산 기능'과 '돌봄 기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30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난 반면 60대 12.1%, 70대 11.2%, 80대 17.6%까지 나타나 세대 간 의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자녀가 더 행복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20대는 56.1%, 70대는 77.2%가 동의했고 미혼은 56.4%, 기혼은 72.8%가 동의해 세대와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회 환경이 개선될 경우 저출산 현상이 개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의 정서적 기능에 대한 기대는 높고, 재생산에 대한 기대는 낮다는 결과가 '저출산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세대가 결혼과 출산의 가치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어 적절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경우 미혼과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젠더 관계 변화로 본 '저출생'과 '돌봄'

|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 합계출산율 추이



2018년 – 0.98명
2019년 – 0.92명
2020년 – 0.84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산은 국민의 생애 사건,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고려 필요

+ **배은경**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두 번째 발제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가 '젠더 관계로 본 저출생과 돌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배 교수는 최근 등장한 '저출생'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짚으며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저출산이라는 말을 대체하는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2020년 6월부터 국회와 정치권에 등장해 올해 5월 현재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다"며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용어를 바꾼다는 것은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아이가 덜 태어나는 것이 문제다'로 문제의 틀을 바꾼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저출산 · 고령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0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17명까지 떨어지며 '저출산 위기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 고령화 추세 완화'를 목표로 기본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는 인구의 규모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이 반영된 것이었다. 배 교수는 이 같은 초기 '출산율 반등 정책'에 대해 '난망한 목표'라는 평을 내놓았다. 그는 "정치적 민주화와 IMF 이후 경제 구조 개편, 일상에서의 신자유주의화와 개인화 등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됐다"며 "과거처럼 개인의 선택을 정책이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의 출산 장려 정책은 '가족 가치'와 '생명 존중'을 위한 캠페인 위주로 접근했다. 이는 사회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젊은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권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고 결국 정책에 대한 젊은 세대의 회의감과 불만이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저출산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심화되어 결국 2018년 정부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선언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그는 "출산은 인구학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숫자로써의 인구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애에서 발생하는 사실이기도 하다"며 "출산을 국민의 생애 사건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구조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우연 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진행한 충청남도 1인 가구 실태 조사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라는 문항에 대해 남성은 37.5%, 여성은 24.2%가 응답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살고 싶다'는 문항에는 여성이 42.2%, 남성이 36.2%가 응답해 1인 가구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여성이 가사와 임신, 양육과 돌봄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년층이 법적 혼인 밖에서 선택하는 다양한 가족 방식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하연 이사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

사실 저출생과 관련한 이슈는 제 주변의 20대 청년에게는 큰 이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이냐",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청년들은 부부 관계처럼 일대일 관계보다는 나를 돌봐 줄 수 있고, 내가 돌봐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패러다임이라고 담론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진 위원장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현재 천안에서 6만 5천여 명의 청년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에게 '왜 결혼이나 아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요. 현실적인 답변이 대다수였습니다. 우선 집을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나의 소득이 현재 나 자신만의 삶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는 답변 등이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보면서 '앞으로 자녀 출생 이후 돌봄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가 잘 된 유럽의 일부 국가도 여전히 돌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유진 대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최근 얼마 전에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출생이 문제일까'라는 질문에 대다수가 '문제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대답에 대해 '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맞는지 염려된다',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현실이 염려 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반면 '혼자 살아가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친구와 살거나 결혼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이뤄서 살 것'이라는 답변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청년이 바라본 저출생 지정토론자들의 한 마디!

유혜선 활동가

충남정치하는엄마들

출산율과 혼인율을 높이는 것은 개인 차원으로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분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과 양육 당사자의 일상이 바뀔 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며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고 또 부모가 됐을 때 개인이 꿈꿔온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가 구축된다면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임재란 출산지원팀장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98개국 중 최하위이며,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19명에서 2020년 1.03명으로 전국 4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일자리와 주택, 양육비와 사교육비, 독박 육아 문제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 경제적 · 사회문화적으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원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INTERVIEW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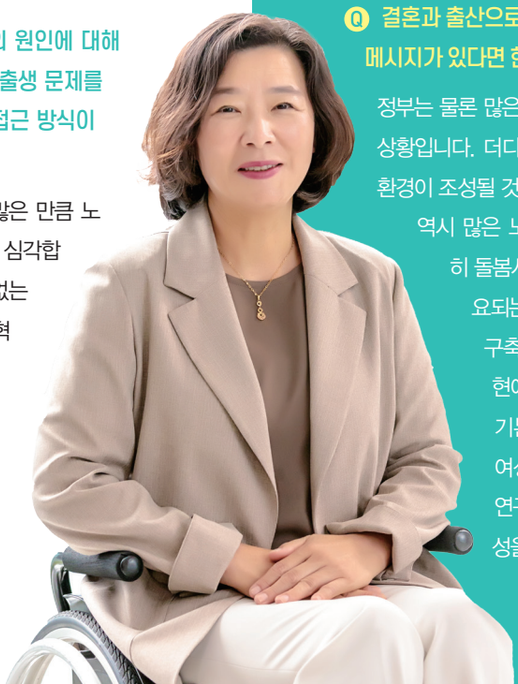
황영란 충청남도의원 인터뷰

Q 현재 충청남도의 출생 현황과 이에 따라 파급되는 구체적인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요?

저출생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존립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거시적인 문제입니다. 지난해 전국 출산율이 0.95%로 사망률이 출생율보다 앞서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부양의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고, 국가적으로는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출산율이 떨어진 만큼 역삼각형의 피라미드 형태로 더 불안정합니다.

Q 충청남도의 저출생 문제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남도만의 접근 방식이 있을까요?

특히 충청남도는 농촌 지역이 많은 만큼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심지어 아이가 하나도 없는 마을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혁신도시 지정 등 국가적 차원의 환경 변화도 있지만 이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혼과 출산,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저출산 관련 정책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해 왔음에도 큰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금 혜택, 공공주택 우선 입주, 난임 시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은 이 같은 지원보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업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정책을 하더라도 과감히 예산을 투자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 선진국의 좋은 사례나 또는 정책 제언 시 참고할 만한 나라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70-80년대 북유럽 등 선진국가도 우리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웨덴의 미혼모 정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부모 지원법'에 의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혼모를 지원하는 정책만 있을 뿐입니다. 비혼인 가정의 자녀들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낳은 아이부터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결혼과 출산으로 고민하는 청년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물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디기는 하지만 점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 역시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돌봄시스템을 개선하고 양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 실현에 있어 충분한 예산 확보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도 이와 관련한 연구 진행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다

홈커밍데이로 OH! SHU [오슈]

지난 12월 1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성평등 충남을 위해 노력한 활동가들과 한 자리에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젠더 차별 반대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가자 모두 '인식개선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떤 활동도 쉽지 않았던 한 해였지만, 공모사업 참가자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 여성인권 신장을 향한 식지 않은 열정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홈커밍데이는 개발원의 교육과 공모사업을 통해 1년간 함께한 지역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성과와 이야기를 공유하는 행사로 매년 12월에 열린다. 이번 2021년 홈커밍데이는 '젠더 차별 반대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공연과 사업 사례 발표, 토론회 등의 형식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오프닝 공연에는 '아무튼유랑단과 친구들'이 참여해 'N번방 이후에도 날로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피해자의 상황과 우리의 올바른 대처를 사실적으로 표현해 참가자들의 몰입과 호응을 얻었다. 이후 충남여성정책개발의 알찬 1년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UP 시리즈 공모사업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UP-시리즈 공모사업은 지난 3월부터 총 세 분야에 걸쳐 진행한 사업으로, 여성 소모임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Start-UP', 지역사회 성평등 정책 점검을 지원하는 '성평등 모니터링 Move-UP', 생활 속 성평등 문제 연구를 지원하는 '작은 연구 Study-UP'으로 이뤄졌다.

이날 사례 발표 시간에는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이행찬 · 김예은 활동가가 충남청소년인권의식 실태와 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를, 논산 모니터링단 연정삼 활동가가 자신의 고민과 성장 이야기를, 공책여행 이은영 대표가 3년간 활동 기록을 각각 소개했다. 사례 발표가 끝난 후 시상식이 이어졌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지역사회를 오가며 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선 활동가에게 주는 '대단한 발상'에는 이미정, 김정재 활동가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물신양면 도움을 준 활동가에게 주는 '남이 아냐 더이상'은 김경덕, 유미경 활동가가 수상했다. 2부 순서인 '톡! 터놓고 Talk!!코너'에서는 '내가 털어내고 싶은 기억 혹은 없애고 싶은 관습은?'이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예산에서 온 윤미경 씨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이 너무 좋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힘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보령에서 온 최미자 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활기를 얻고 앞으로 지역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에 대해 더 기대가 된다"며 "특히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 또한 꾸준히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성평등 충남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문화 확산, 활동가 발굴로 여성 참여가 늘어나 기쁘고 든든하다"며 "앞으로 충청남도도 성평등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경험과 지식과 공감과 사례 공유의 시간

청소년 인권 의식 조사에서 교육 진행까지!

김예은 학생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연구 계기

페미니즘과 성평등 이슈는 청소년 생활에 강력한 영향 행사

연구 결과

2019~2020년에 진행한 청소년 성평등 의식 조사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 차이가 크고 성별 구별 없이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주로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성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는데, 이를 통해 교과 과정의 성교육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참여와 대화를 원하는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해 '맞춤식 성평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더니, 짧은 기간 안에 성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변화를 보였다. 앞으로 대화와 토론 형식의 교육을 체계적이면서도 꾸준히 진행해야겠다고 느꼈다.

충남 성평등 모니터링 Move-UP

연정삼
충남성평등 모니터링 논산시 활동

활동 목적

각 시 · 군의 정책과 사업을 성평등 관점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활동 일지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나를 지배하던 고정관념을 탈피해 성평등의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각종 홍보물에 남성 중심의 편향된 요소들이 많았고, 공무원, 디자이너 등이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논산여성참여단과 함께 논산시 홈페이지의 오류도 시정했다. 교육을 통해 문제점이 보였고,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어 단체의 방향성과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

3년간 단단해진 우리이야기!

이은영
공주 공책여행 대표

활동 목적

1주일에 한 번, 정기모임을 통해 책 토론을 하고 젠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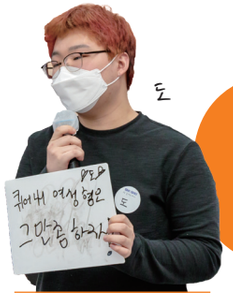
활동일지

2019년, 유명 책방을 방문하고 활동가들을 만나며 대도시 중심의 페미니즘 네트워크 분산과 좀 더 전문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2020년 '조신한 여자는 필요 없다! 공주 여성들의 나댐 나.됨' 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세대별, 분야별 여성들을 다양하게 만나며 연대를 실천했다. 2021년에는 여성주의 리더십 타로 워크숍을 통해 나와 우리를 되돌아보고, 리더십 재발견, 여성리더의 비전을 세우며 내면의 힘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의 성장을 「공책여행 성장스토리 2019/2021」로 제작해 주변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툭 터놓고 톡

당신의 마음을 들려줘~

Q 털어내고 싶은 기억 혹은 없애고 싶은 관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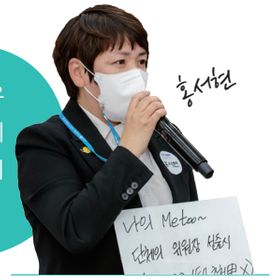
A **퀴어 내 여성혐오!** 이제는 그만 좀 할 때가 됐다!

퀴어 내에서도 여성 혐오적인 행태가 은어를 포함하여 너무 많습니다. 자정 활동도 이뤄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퀴어란? 퀴어(Queer)는 본래 "이상한", "색다른" 등을 나타내는 단어였지만, 현재는 성소수자 (레즈비언 · 게이 · 양성애자 · 트랜스젠더 등)를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

A **몇 살이예요?** 묻지 말자~

여성 선출직 후보 시절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기도 했고 제가 어려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왜 여쭤봤냐고 물었더니 "너무 젊은 여자가 단체장을 하기에는 무리지 않냐" 라고 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결과는 제가 이겼어요!



A **"섹시하다는 말 들으면 기분 나빠?"** 라고 하는 상사, 어쩌죠?

회사 생활 할 때 팀의 가장 높은 분인 상무님이 "섹시하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나빠?"라고 수시로 직원들에게 묻곤 했어요. 그때는 상무님께 불편하다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팀의 가장 막내였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을 못한 것이 후회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미래 여성리더 발굴을 위한 시작

유관순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일제강점기 역사에서 여성의 독립운동을 밝히는 것은 미래 여성 리더를 발굴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를 세우는 것과 같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의 경우 당시 사회 분위기 상 전면에 나서 활동하기 힘들었으며, 남아 있는 기록조차도 남성독립운동가에 편중된 연구들에 의하여 묻힐 때가 많았다. 이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10월 18일 백석대학교 본부동 106호에서 '충남여성의 독립운동과 유관순열사의 항일정신 계승'을 대주제로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소장 박종선)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유관순 열사를 통해 본 충남여성의 독립운동

1부 '충남여성독립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김상기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국립안동대학교 강윤정 교수가 '충남 여성독립운동의 연구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충남 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위상'은 (전)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종철 수석연구원이, '젠더로 보는 충남의 여성 독립운동'은 여성사연구소 이성숙 소장이 각각 발표에 나섰다. 이어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이성우 연구원과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예지숙 HK연구교수, 강원도민일보 박미현 논설실장이 각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았다. 2부에서는 '미래세대와 유관순 열사의 항일정신 계승'을 주제로 단국대학교 전일욱 교수가 좌장으로, 윤여승 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이 '유관순학교 운영 비교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뉴욕에서 유관순열사의 함성을 외치다'는 유혜경 유관순 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유관순열사의 정신 계승에 관한 연구'는 백석대학교 송병호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이어 김성철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유인순 한국커리어잡스 대표이사, 전홍식 한국교통대학교 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유관순연구소 이건수 수석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전체 종합 토론도 진행했다.

유관순열사 정신 계승은 곧 여성리더 발굴

이날 개회사에서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박종선 소장은 "충남지역에서 독립운동과 관련해 활동해온 여성들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제

대로 된 평가를 하는 데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함께 해서 오늘 이 자리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조양순 원장은 환영사에서 "미래세대에게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앞으로 충남에서 유관순과 같은 여성리더가 발굴·양성되는 것"이라며 "유관순연구소와 협력하여 관련분야 연구와 교육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영상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양 기관의 연구활동을 활발히 공유하고 역사적 자료 발굴 및 확산을 위해 협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충남의 수많은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을 위한 연구가 이어지고, 그들의 숭고한 업적이 후손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공동 세미나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6일 유관순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계와 협력 ▲전문 인력의 상호교류 및 연구과제 공동수행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의 공동 개최 ▲상호 발전을 위한 정보와 의견 교류 등을 약속했다.

2021 It Book!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들의 추천!

01 우리 곁의 난민 : 한국의 난민 여성 이야기

추천인 |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2017년 서울연구원에서 출간한 책으로,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한다. 참고로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인권 소외 지대에 놓여 있는 소수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이야기로 엮은 서울연구원의 기획 시리즈이다. 제주도에 상당 수 난민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서 난민 이슈가 한창이던 시기에 널리 읽힌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한국사회 속 난민 여성들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일상을 살아가는 여느 이웃 사람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02 개소리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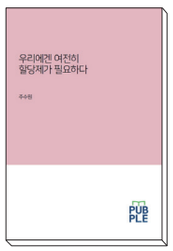
추천인 | **이채민 연구위원**

안타깝게도 여성혐오에 기반한 개소리들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는 요즘이다. 숏컷=메갈, 역차별 논란, '맞을 만 했으니 그런 것이다',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무고 조항 신설' 주장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벅찬 개소리들이 너무나 많다. 이 책은 미국 대선 기간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트럼프의 막말을 해석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유명하다. 공동체가 왜 개소리를 경계해야 하는지, 개소리를 경계하지 않을 경우 공동체가 어떤 모습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지를 낱낱이 알려주는 통찰력 있는 책이다.

03 우리에겐 여전히 할당제가 필요하다

추천인 | **맹준호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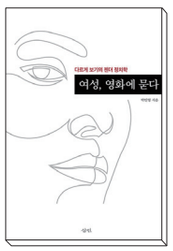
이 책은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변하기 위해 격차가 벌어지는 모든 분야에서 할당제가 필요하며 할당제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할당제를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정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만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04 여성, 영화에 묻다: 다르게 보기의 젠더 정치학

추천인 | **이경하 연구원**

저자는 한국영화 속 서사와 표현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흥행 영화가 남성의 성장스토리를 주요 맥락으로 놓고 여성은 로맨스 관계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지거나, 여성을 대부분 수동적이며, 구원의 대상, 피해자 또는 희생자로 등장시키면서 남성 서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보았던 영화지만 다시 한 번 볼 영화'와 '못 본 영화 중에서 보고 싶은 영화' 목록이 생겼다.



05 우리의 사랑은 언제 불행해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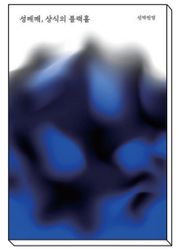
추천인 | **허현진 연구원**

낮에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밤에는 집에서 그림일기를 그리며 팟캐스트 〈서늘한아음썰〉의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서늘한 여름밤'의 에세이다. 사랑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는 무수한 질문을 가감 없이 던지며 반려인과의 7년 연애와 동거, 결혼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특유의 솔직하고 위트 있는 화법으로 풀어낸 기록이다. "나는 나의 일부를 너무 미워해서 감히 누군가에게 사랑해달라고 꺼내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지은이의 솔직한 고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06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추천인 | **김영주 수석연구위원**

20여년 동안 반(反)성매매 운동 단체에서 활동했던 활동가가 집필한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의 일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많은 과정들이 성구매 대상이 되는 많은 여성에게 얼마나 억압적인 것인지를 역사적 연구와 현장의 활동 사례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사람이 저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그래도 상식의 길로 가야만 한다.



07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

추천인 | **태희원 선임연구위원**

아픈 노인을 모시고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녹초가 된 상태에서 열독한 책이다. 이 책은 초보 보호자로서 내가 경험한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한국 의료의 구조적인 상황과 문제들을 여러 전문가들이 구술로 전달해 준다. 저자들은 자칫 현재 한국의 의료를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논리라는 쉬운 판단으로 뭉뚱그려 단정하지 않도록, 한국 의료 시장의의 역사적 배경과 정책, 제도들, 시장 주체들에 대하여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세심하게 풀어놓는다.

08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추천인 | **안수영 선임연구위원**

밥벌이, 돌봄, 건강, 배움, 사랑, 관계, 소유라는 7개의 주제를 각각 생업과 노동, 아이 돌봄과 부모 돌봄, 교육과 공부, 열애와 동행,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몸과 마음, 가진 것과 잃은 것으로 나누어 모두 14개의 인생 프리즘에 담아냈다. 때때로 고단한 인생의 골목에서 사랑, 자유, 고귀함 같은 마음속의 빛나는 말들이 점점 옅어져 가고 가고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덜꺽 멈춰서기도 한다. 만약 그때가 지금이라면 일독을 권한다. 책은 추운겨울 따뜻한 차처럼 읽는 이의 마음을 데운다.

COMMUNICATE

소통하다

SNS 홍보기자단 82

충남여성 뉴스룸 86

성평등 충남을 만드는 사람들 90

2021년 충남 구석구석을 누빈 SNS 홍보기자단의 행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SNS홍보기자단은 충남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 인식 개선 활동과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전달해 주고 있다. 코로나19에도 구석구석을 다니며,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지역의 행보를 담아왔다. 충남 전반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만나보자.

#1

#성역할고정관념 #인식개선
#스마트폰 사진전 #캠페인

이미정 아산시 홍보기자

새롬교육은 11월 24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14시~16시까지 작은 것 하나 바꾸기 양성평등 인식개선 캠페인 및 설문조사, 양성평등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투표를 진행했다. 새롬교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시민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부여군민참여단 #워크숍진행 #역량UP

김형옥 부여군 홍보기자

부여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위촉식 및 워크숍이 8월 27일 여성문화회관에서 열려 참석했다.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은 젠더 감수성과 성인지 관점으로 참여, 안전, 돌봄, 건강 분야를 바라본다. 우리의 활동이 시정에 반영되어 부여군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쾌적한 도시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여성친화도시 부여군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한다.

#3

#아산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영화제 #양성평등주간

이미정 아산시 홍보기자

아산시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아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아산여성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여성영화제는 사전예약을 받아 50인 제한으로 진행 되었으며 장수상회, 수상한그녀들 등 다양한 영화를 상영해 참여한 사람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선사했다. 여성의 인권 침해의 아픔이 있는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미마을이 양성평등거리로 재탄생된 공간에서 진행된 여성영화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4

#은행나무길 #자전거도로안전점검 #아산시민참여단

이미정 아산시 홍보기자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7월 7일 은행나무길 주변 위험요인과 곡교천 자전거 전용도로 현장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직접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불편한 점과 주변 위험요소까지 꼼꼼히 모니터링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아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 내용은 여성가족과를 통해 아산시 각 관련 부서에 제안된다.

#5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개원22주년 #SNS홍보기자단

손선우 논산시 홍보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개원 22주년 기념 세미나가 7월 1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가족형성과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함의, 젠더관계 변화로 본 '저출생'과 돌봄 발제 및 지정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저출생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6

#트롯가사분석 #작은연구

정미선 홍성군 홍보기자

대중 트롯 속에 숨겨진 '성차별' 가사 분석 작은연구(study-up) 모임을 논산에서 진행했다. 곡명과 발표 연도, 주제, 화자의 성별, 태도 및 관계 표현, 성별에 따른 외모의 묘사 차이, 성별을 상징하는 단어 표현 등 가사에 담긴 의미에 대해 토론했다. 흥행과 상업적인 측면에 치우친 트롯 문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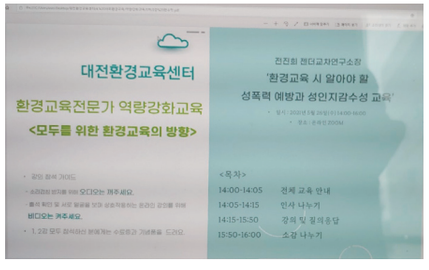
#7

#여성친화도시만들기 #성인지감수성
#고정관념격파

김형옥 부여군 홍보기자

군민들의 참여로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부여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매주 목요일마다 10회 걸쳐 실시된다. 윤금이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강사의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으로 비대면으로 실시되었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 감수성을 찾아서'를 시작으로 사회가 만들어 내는 일상의 성차별 고정관념을 깨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8



#환경교육센터 #성인지감수성 #활동가교육

김은선 대전광역시 홍보기자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교육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은, 〈환경교육 시 알아야 할 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주제로, 코로나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 전진희 젠더교차연구소장을 만났다. 환경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움과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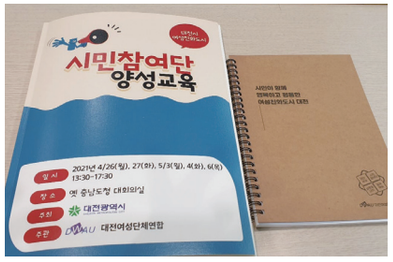
#9

#친환경 #탄소중립

전말숙 보령시 홍보기자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탈석탄, 탄소중립 금고지지성명 및 탄소중립생활실천 이행동참 결의대회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16개시 · 군 여성단체 회장들과 양승조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0



#시민참여단교육 #여성친화도시대전
#젠더감수성

김은선 대전광역시 홍보기자

대전 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양성교육을 4월 26일에서 5월 6일까지 실시하였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개념과 역할, 젠더 감수성 등을 교육받았으며, 이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여성친화도시 대전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11

#홍동면 #여성의날 #현수막

성윤아 홍성군 홍보기자

홍성군 홍동면에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현수막이 걸렸다. 행성이라는 여성동아리에서 매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게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여농센터와 함께 협업하여 게시하였다고 한다.

충남 여성 뉴스룸

2021년에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 충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민 · 관 협력을 통한 정책 간담회, MOU 체결 및 시민 대상 젠더아카데미,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으로 미디어 속 관심을 받았다. 올해 보도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뉴스를 정리해봤다.

NEWS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업과제 제안 자리 마련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1일 대강당에서 여성 일자리, 공동체, 다문화, 여성권익, 복지 분야 등 도 및 시 · 군 사무위탁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진신문, 2월 1일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업과제 제안 자리 마련

당진신문 | 승인 2021.02.01 16:53 | 댓글 0

[당진신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1일 대강당에서 여성일자리, 공동체, 다문화, 여성권익, 복지 분야 등 도 및 시·군 사무위탁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현장기관에서 요구되는 연구 및 교육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올해 사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10개개 현장기관과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진이 참여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천안시와 성인지 통계집 제작 착수

천안시가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시 최초로 성인지 통계집 제작에 착수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올해 8월 말 최종 발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일보, 3월 10일자

'여성친화도시 천안'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천안시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천안시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천안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시 · 군 여성정책부서 정책간담회 개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5일 대강당에서 15개 시 · 군 여성정책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 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들뉴스 4월 5일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시·군 여성정책부서 정책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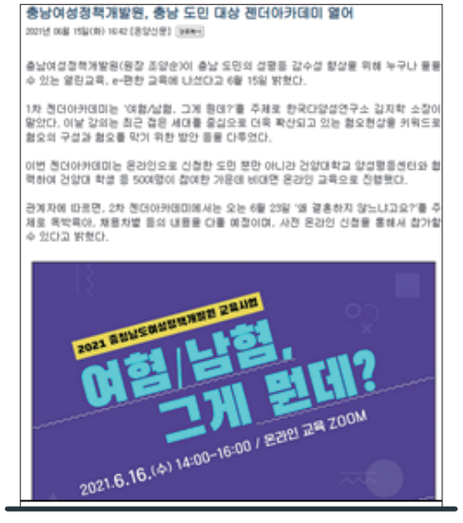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이 5일 대강당에서 15개 시·군 여성정책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정책개발원은 매년 상반기 시군여성정책 담당부서와 여성, 가족, 다문화,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의 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 도민 대상 젠더아카데미 열어

젠더아카데미는 '여혐/남혐, 그게 뭔데?'를 주제로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이 맡았다. 이날 강의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혐오 현상을 키워드로 혐오의 구성과 혐오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다루었다.

온양신문, 6월 15일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 도민 대상 젠더아카데미 열어

2021년 06월 15일(화) 16:42 [중앙신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이 충남 도민의 성평등 감수성 함양을 위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열린교육, e-러한 교육에 나섰다고 6월 15일 밝혔다.

1차 젠더아카데미는 '여혐/남혐, 그게 뭔데?'를 주제로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이 맡았다. 이날 강의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혐오현상을 키워드로 혐오의 구성과 혐오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다루었다.

이번 젠더아카데미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도민 분만 아니라 건양대학교 양성평등센터와 협력하여 건양대 학생 등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젠더아카데미에서는 오는 6월 23일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요?'를 주제로 똑박똑아, 채용차별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개원2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1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개원 2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생'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세대의 문제가 아닌 시대의 문제로 담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일자리진흥원 이시우 원장 등 충남도내 · 외 내빈과 지역사회 청년, 관련 분야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충청일보, 7월 1일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직무 연수 과정 열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이 2일부터 6일까지 5일에 걸쳐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성평등 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 과정을 열었다고 밝혔다.

온양신문, 8월 2일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직무 연수 과정 열어

충남 교사 성평등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1년 08월 02일(월) 16:46 [온양신문]

11 충남교사성평등교육 전문성향상 직무연수<사진 제공=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온양신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이 2일부터 6일까지 5일에 걸쳐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성평등 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 과정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2018년부터 충남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한 과정으로 매년 300여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30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코로나이후 여성 일자리 대응대책 연구 결과 발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고학력 여성 종사 비율이 높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실태와 노동조건 및 환경 변화를 조사하여 대응 방안을 찾았다.

충남신문, 10월 21일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코로나이후 여성 일자리 대응대책 연구 결과 발표

온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0/21 [20:09]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이 고학력 여성 종사비율이 높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실태와 노동조건 및 환경 변화를 조사하여 대응방안을 찾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도내 민간 교육서비스업체 사업주 210명, 종사자(교육전문직) 550명을 1:1 면접조사 및 온라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사업주 및 종사자 모두 이전과 비교해 고용량이 감소하고 일자리 질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경찰대 MOU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은 17일 경찰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양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과 이철구 경찰대학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경찰대 MOU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11.17 15:05 | 댓글 0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공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은 17일 경찰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양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과 이철구 경찰대학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여성아동안전 분야 공동연구, 세미나 공동 개최 및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성인지 교육을 제공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내포뉴스, 11월 17일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인권경영 선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은 인권 존중과 인권침해 예방, 인권친화적 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선언문에는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구제 노력, 직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 3권 보장, 여성의 인권과 사회활동 활성화 및 노동자 일 · 생활 균형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임직원 모두의 다짐이 담겨 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인권경영 선포

인권 존중과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 노력 약속

강석철 | 기사입력 2021/12/06 [21:31]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인권경영 선포식

▲ ⓒ강석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은 인권존중과 인권침해 예방, 인권친화적 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경제, 12월 6일자

성평등 충남을 만드는 사람들

| 기획조정실

이름	직위	전공	업무
송미영	수석연구위원	사회복지학	연구, 교육, 행정팀 업무총괄
이경하	연구원	사회학	대외협력, 홍보사업
호지영	연구조교		업무지원

| 연구팀

이름	직위	전공	업무
안수영	선임연구위원(팀장)	노동사회학	일자리연구
김영주	수석연구위원	문화사회학	인권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언어문화학	다문화
임우연	선임연구위원	가족사회학	가족정책, 여성친화도시
태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학	젠더연구
맹준호	연구위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
안세아	연구위원	행정학	여성복지정책
오민아	연구위원	교육학	사회교육
김미란	연구조교		연구지원

| 교육 · 사업팀

이름	직위	전공	업무
조윤진	연구위원(팀장)	사회복지학	업무총괄, 사업기획 및 운영
이채민	연구위원	사회학	교육 · 연구조성사업
허현진	연구원	사회복지학	교육 · 연구조성사업
허선영	연구조교		교육사업지원

| 성별영향 평가센터

이름	직위	전공	업무
태희원	선임연구위원(센터장)	여성학	성별영향평가센터 총괄
안세아	연구위원	행정학	성별영향평가 및 연구 · 컨설팅
이정윤	전담연구원	사회학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관리
조명아	전담연구원	사회학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관리

| 행정팀

이름	직위	업무
김기석	팀장	경영평가, 행정팀 업무 총괄
김매화	행정원	일반회계 예산 결산
나영주	행정원	노무 담당
황선덕	행정원	행정지원
김영숙	청소직	원내외 시설 환경 미화
전경배	시설관리	원내외시설 및 조경 관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한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많은 여성과 소통하며
다양한 현안을 찾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 성과는 충청남도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며,
실효성 있는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기여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달라지는 환경에 대응하며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충남 人 여성in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